

번역논문

『임나홍망사』II*

譯 이상희**, 김소정***, 전진국****

- V. 임나의 쇠퇴
- VI. 임나의 쇠퇴(속)
- VII. 임나의 멸망

V. 임나의 쇠퇴

1. 백제의 응진 천도

고구려는 평양으로 천도(427년)한 뒤 약 50년이 되어 대규모의 남진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그것이 돌발적인 것이 아니었음은 472년 백제가 북위北魏에 보낸 표문表文(『위서魏書』백제국전百濟國傳)에서 추측할 수 있다. 북위는 백제의 도움에 응하지 않았다. 5년 뒤인 475년 겨울, 고구려는 대군을 내어 일거에 백제의 도성(한성漢城, 위례성尉禮

* 이 글은 末松保和, 1949, 『任那興亡史』, 東京: 吉川弘文館(1977 第6刷), 5~7장(103~188쪽)을 번역한 것이다.

본문의 ()은 원문의 괄호이고, []은 번역자의 괄호이다.

** 제주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한일과 강사

*** 제주대학교 대학원 한국학협동과정 수료

**** 충북대학교 사학과 강사

城)을 공격하여 백제의 국왕을 비롯한 많은 사람을 죽이자, 백제는 한 때 멸망에 다다르기도 하였다. 웅략천황雄略天皇 20년기에 인용된 『백제기百濟記』에는 그 사건에 대해, “개로왕蓋鹵王 을묘년乙卯年 겨울, 박狛(고구려)의 대군이 와서 대성大城을 공격하기를 7일 밤낮으로 하니 왕성王城이 함락되었다. 마침내 위례蔚禮를 잃고 국왕 및 태후·왕자 등 모두가 적에게 죽임을 당했다.”라고 서술하였다. 『일본서기』의 본문에는¹⁾ “겨울 고려왕이 크게 군사를 일으켜 백제를 쳐 멸망시켰다. 그곳에 남은 몇몇의 무리들이 창고 아래에 모여 있었다. 무기와 양식이 이미 다 떨어져 울 정도로 근심이 매우 깊었다. 고려의 여러 장수들의 왕에게 이르기를, ‘백제의 마음가짐은 그 끝을 알 수 없으며, 신들이 평소 볼 때에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을 가늠할 수 없습니다. 또 다시 덩굴이 뻗어 자라듯 되살아날까 두려우니, 마지막까지 그들을 쫓아 제거하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고려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과인이 듣자하니 백제가 일본의 관가官家가 된 것은 유래가 깊고 오래 되었으며, 그 왕이 일본 조정에 들어가서 천황을 섬긴다는 것은 사방이 다 아는 바이다.’하고, 마침내 그만두고 돌아왔다.”라고 쓰여 있다.

고구려가 백제의 도성을 함락시킨 그 사건의 의미는 약 100년 전인 371년 백제의 북진으로 고국원왕故國原王을 잃은 그 원수를 완전히 갚은 것이며, 보다 넓은 의미에서는 남진에 하나의 획을 긋는 큰 승리였다. 반면 『일본서기』의 본문에 서술된 바와 같이, 백제에게 이는 한편으로 멸망과 같은 사건이었다.

한성이 함락된 결과 백제는 남쪽 약 30리에 있는 웅진熊津(지금의 충청남도 공주)으로 물러나 그곳을 새로운 도성으로 하였다. 백제는 다시 일어난 것과 다름없었다. 『삼국사기』에서는 한성이 함락된 해(475년)에 웅진으로 천도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일본서기』에서는 함락된 다음 해의 기사(웅략천황 21년기)에, “3월 천황은 백제가 고구

1) 『일본서기』에서는 어떠한 이유인지, 이 기사의 기년에 1년의 차이가 있다. 본문의 웅략천황 20년의 간지는 병진년丙辰年이므로 분주分注에 기재된 을묘년乙卯年の 다음 해에 해당한다.

러에게 깨진 것을 듣고 구마나리久麻那利[웅진]를 문주왕汶洲王에게 주어 나라를 구하여 일으키도록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구마나리를 문주왕에게 주었다고 하는 것은 윤색에 지나지 않지만, 백제가 한성을 상실한 것과 그 결과인 웅진 천도는 일본 세력의 일대 축소와 다름없었다.

백제의 한성이 함락됨으로 인해 나타난 가장 큰 결과는 413년 이후 반세기 가량 계속된 일본의 남조 통교가 중단된 것이라 생각한다. 앞장 끝부분에 서술한 바와 같이, 한성 함락 3년 뒤[478년] [왜의] 무왕武王이 [송에] 보낸 표문은 마지막 호소였고, 이후 약 120년간 일본의 중국 통교는 단절된다. 그 이면의 사정을 보여주는 첫 사례는, 479년에 가라국 왕 하지荷知가 남제南齊에 사신을 보낸 일이다. 『남제서南齊書』 동남이전東南夷傳에, “건원建元 원년元年(479)에 가라국 왕 하지의 사신이 입헌入獻하여 보국장국輔國將軍 가라국왕加羅國王을 제수했다”는 기사가 보인다. 이는 가라국왕의 이름이 중국 사서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보이는 기사이다. 이 가라국왕의 정체를 명확히 파악하기는 불가능하지만, 어쨌든 가라의 한 나라가 독자적인 외교를 시도하였음은 부정할 수 없다. 일본의 지배가 강력할 때는 그러한 일이 시도되었다 하더라도 허락되지 않았을 것이다. 때문에 사신을 보낸 것은 무엇보다 먼저, 가라 여러 나라의 성장을 나타내는 것이며 일본의 통제력이 해이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임나에서 일본 세력이 쇠잔해졌음을 나타내는 두 번째 사례는, 487년 대산성帶山城을 공략 사건이다. 사료에 서술된 바를 옮겨 적으면 다음과 같다. “이 해에 기생반숙례紀生磐宿禰[키노이쿠하노 스쿠네]가 임나에 웅거하여 고구려와 통교하며, 바야흐로 삼한의 왕이 되려고 하는 야망을 가지고 관부官府를 정비하고 스스로 신성神聖이라 하였다. 임나의 좌로나기타갑배左魯那奇他甲背 등의 계책을 써서 백제의 적막이해適莫爾解를 이림爾林에서 죽이고 대산성帶山城을 쌓아 동도東道(일본도)를 막고 식량을 운반하는 나무를 끊어 군사를 굶주려 빈곤하게 하였다. 백제왕이 크게 노하여 영군領軍 고이해古爾解와 내두內頭

막고해莫古解 등을 보내 대산성을 공격하였다. 이에 기생반숙례가 군사를 내어 거꾸로 역습하니 향하는 곳마다 모두 깨뜨렸다. 그러다가 문득 병사와 힘이 다하여 일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알고, 임나에서 일본으로 돌아왔다. 그로 인해 백제는 좌로나기타잡배 등 약 3백인을 죽였다.”(현종천황顯宗天皇 3년기)

종래 이 기사는 기생반숙례의 반역사건이라는 시각이 강하게 작용되어 읽혀졌지만, 사건의 진상은 대산성 쟁탈에 있다. 앞 문장에서 보이는 인명과 지명으로 미루어보아, 이 기사의 출처가 백제 사료라는 것은 의심할 바가 없다. 이를 통해서 볼 때, “기생반숙례가 삼한에서 왕이 되려고 한 야망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백제의 대산성 공략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백제 사가史家の 덧붙임에 지나지 않는다. 그가 임나를 다스렸던[執政] 방식은 오히려 임나의 세력을 만회하려는데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가 백제의 적막이해를 죽인 이림은 405년 직지왕이 즉위할 때 백제에게 할양한 3성 중의 하나로, 전라북도 서북단 만경강 하구의 요지이다. 또한 그때 쌓은 성 대산은 이림의 남동쪽 9리, 지금의 전라북도 정읍군 태인泰仁이다.(태인은 본래 태산현太山縣과 인의현仁義縣이 합쳐진 것으로, 태산太山の 옛 이름은 대시산大尸山이라 하였다.) “백제의 동쪽 길을 막아 식량을 운반하는 나무를 차단하였다.” 하는 것에 가장 적합한 지점이다. 이는 임나를 방어한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백제를 침공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백제왕의 반격 규모도 상상하기 어려운 것은 아니다. 대산성이 함락되고 기생반숙례는 패배하여 물러났다. 결국 백제의 남진에 오히려 좋은 불씨를 제공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덧붙여, 대산帶山을 『일본서기』에서 고훈古訓으로 シトロムレ[시트로무레]라고 읽는 것에 대해 아유카이 후사노신[鮎貝房之進]은 경정할 만한 설을 제시하였다. ムレ[무레]는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산山의 한국어로, 후세에 mois·moi[뫼]가 되고, 시토로는 지砥(トイシ)의 한국어 sius-tor[숫돌]로 그 지역의 산물을 이름으로 한 것이라 하였다. 그리고 태산泰山の 옛 이름인 대시산大尸山の 대시大尸(tai-r)는 두음

頭音 sius[숫]을 생략한 tor[돌]의 음역音譯이며, 대帶는 대대의 대역對譯이라 하였다.

2. 백제의 남제 통교

임나의 쇠잔과 일본 세력의 후퇴에서 드러나는 세 번째 사건은 백제의 남제南齊 통교이다. 이미 기술한 바와 같이, 백제의 중국 통교는 372년 동진東晉에 조헌朝獻한 뒤 471년에 이르는 딱 100년 동안 오로지 남조南朝의 송宋을 상대로 하였다. 그러다가 472년 고구려 견제에 직접적 효과를 위해 처음으로 북조北朝의 위魏에 입조하여, 장문의 표문表文을 올려 군사적 도움을 요청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는 없었다. [남조에서] 송宋이 멸망하고 제齊가 서자 다시 그 정삭正朔을 따랐고, 이어 양梁나라에 대해서도 바뀐 바 없었다. 이러한 중국과의 통교에서 언제나 변함없었던 점은 대대로 중국의 작호를 얻으려 하였고, 그것을 얻었다는 것이다. 그런 가운데 변화가 있었다면, 먼저 송 대명大明 2년(458) 여기餘紀 이하 11명의 신하에게 관군장군冠軍將軍 이하의 장군호 제수를 청한 점이다. 그 의미에 대해서는 종래 거의 고찰되지 않았는데, 여기서 잠시 언급해 보겠다. 이러한 신하의 군호를 중국의 천자에게 요구한 사례는 앞서 서술하였듯이 왜국倭國 왕이 송에 두 번(438년 왜수倭隋 이하 13인, 451년 23인) 시도한 경우만 있고, 고구려와 신라에서는 없었던 일이다. 즉 당시 동방에 있는 여러 나라 모두에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특별한 의미를 여기서 (백제와 왜국의 경우) 찾을 수 있을까? 언뜻 보기에 의례적이고 형식적으로 보이는 사실에도 실질적이고 실리적인 목적이 있어야 한다. 그 실질적 목적으로 생각되는 점은 송에 입조한 각 사신들이 받아야 할 대우를 확보하기 위함과 백성에 대한 권위를 갖기 위함이었다는 것이다. 백제와 왜국 모두의 경우, 그 중 후자가 주요한 목적이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특히 백제의 경우, 458년 11명의 사신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8명은 여씨餘氏 즉 왕족이고, 나머지 3명은 목씨木氏 1명, 마씨麻氏 1명, 우씨于氏 1명이다. 백제 행정제도의 특징으로 “그 나라에는

22담로檐魯가 있고, 모두 왕의 자제종족子弟宗族이분담하게 했다.”라고 하는, 『양서梁書』 백제전의 기사와 같이 전국을 왕족에게 분봉分封한 것이 인정된다. 그 [담로제, 분봉제]의 성립을 위해, 성립의 방편으로 중국의 인정을 구하는 방법을 채용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백제가 송과 통교한 목적 중 하나는 위와 같은 이유가 있고, 또 그것이 그와 같이 해석된다면, 다음으로 남제南齊와 통교한 기사에 새롭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그것은 요청한 신하의 군호軍號에 더하여 지명을 붙여 왕후王侯 등의 작호爵號로 하였다라는 점이다. 신하의 직함에 그러한 작호를 붙인 가장 오래된 예는 472년 북위北魏에 사신으로 간 여례餘禮를 사사로이 임명한 관군장군冠軍將軍 부마도위駙馬都尉 불사후弗斯侯 장사長史라는 관직명이다. 뒤이어 490년 남제에 요청한 것에서는 녕삭장군寧朔將軍 면중왕面中王 저근姐瑾을 관군장군冠軍將軍 도장군都將軍 도한왕都漢王으로, 건위장군建威將軍 팔중후八中侯 여고餘古를 영삭장군寧朔將軍 아차왕阿錯王에, 건위장군建威將軍 여력餘歷을 용양장군龍驤將軍 매로왕邁盧王으로, 광무장군廣武將軍 여고餘固를 건위장군建威將軍 불사후弗斯侯로 제수해 주기를 청하였다. 또 495년에는 사법명沙法名을 정로장군征虜將軍 매라왕邁羅王으로, 체수류替首流를 안국장군安國將軍 벽중왕辟中王으로, 해례곤解禮昆을 무위장군武威將軍 불중후弗中侯로, 목간나木干那를 광위장군廣威將軍 면중후面中侯로 제수하기를 요청하였다. 여기에 보이는 불사후弗斯侯 이하의 왕후는 각각의 지명에 해당하는 곳의 영주로 인정된 것이라 해석된다. 그렇다면 그 지역은 어느 지역일까?

(1) 불사弗斯(pur-sa)는 한자漢子상으로, 앞 시기의 『위지魏志』[『삼국지』 위서]』 한전韓傳의 마한馬韓 50여국의 하나인 불사분야국不斯濱邪國, 또는 속로불사국速盧不斯國 등의 불사不斯(pu-sa)가 가장 가깝고, 뒤 시기에는 비사벌比斯伐·비자화比自火의 비사比斯(pi-sa)·비자比自(pi-cha)에 그 말이 남아 있다. 실제의 지명은 비사벌 즉 비자화로, 오늘날 전라북도 전주로 보는 것이 가장 온당하다. 그러나 여전히 별도의 후보지를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데, 이는 이후 (7)의 불중弗中에

서 다시 다루겠다.

(2) 도한都漢(to-xan)은 한자 그대로 비슷한 지명은 없다. 그러나 그 음에 가까운 후대의 지명으로, 『삼국사기』 지리지의 무주武州 조에서 후보로 들 수 있는 두 개의 지명이 있다. 첫 번째는 분령군分嶺郡의 영현領縣 중 하나인 두힐豆吩(tu-xur)현縣이고, 두 번째는 금산군錦山郡의 영현領縣 중 하나인 두힐豆吩(tu-xan)현이다. 그 중 후자라면 지금의 전라남도 나주의 서쪽 약 3리가 되는 지역이고, 전자라면 전라남도 고흥 지역이다.

(3) 면중面中(mion-chung)은 뒤에서 기술할 팔중八中·벽중辟中·불중弗中 등의 예에서 볼 때 ‘중中’은 일정 지역을 나타내는 한어漢語로 해석되므로, ‘면面’ 한 글자가 원 지명의 머리글자 또는 첫 음을 나타낸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면’자 그대로 머리글자로 쓴 지명이 없기 때문에, 두음으로 추정하면, 후보가 될 만한 것이 매우 많다. 예를 들면 무진武珍(mu-tar)주州·무시이武尸伊(mu-r-i)군郡·미동未冬(mi-tong)부리현夫里縣·물아혜勿阿兮(mur-a-xioi)군·물거勿居(mur-ko)현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중 무진주가 가장 유력하다고 생각한다. 무진은 오늘날의 전라남도 광주 지역이다.

(4) 팔중八中(par-chung)은 ‘팔八’자의 음으로 본래 지명의 두음頭音을 나타낸 것이라 생각되므로, 무주武州 발라發羅(par-ra)군이 가장 근사하다. 아유카이 후사노신[鮎貝房之進]은 ‘팔八’이 ‘반半’과 통하는 것을 입증하며 반나半奈(pan-na)부리현夫里縣에 비정하였다. 그렇지만 발라發羅와 반나부리半奈夫리는 5리 떨어져 있고, 본래 같은 지역이었던 것이 뒷날 분리되어 두 개로(발라發羅와 반나半奈) 쓰이면서 나타나게 된 것이라 생각되므로 발라 또는 반나부리라 하여도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 발라는 오늘날 전라남도 나주 지역이고, 반나부리는 나주군 반남 지역이다.

(5) 아착阿錯(a-chak)은 그 음으로 보아 무주武州 아차산군阿次山郡의 아차阿次(a-cha)에 비정된다. 아차산군은 나중에 압해壓海(압해押海)군, 지금의 전라남도 목포木浦 앞 바다에 있는 나주군도羅州群島이

다. 백제 멸망 뒤(660년대) 그 땅에 당唐이 일시 두었던 군현 중에 아착현阿錯縣이 있는데, 그 땅은 본래 원촌源村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원촌과 아착의 언어상의 관계는 자세히 알 수 없다. 원촌의 현 위치도 전혀 알 수 없으며, 단지 전라북도 함열咸悅 부근이라는 것만 알려져 있다. 일단 아차산군에 아착을 비정하고자 한다.

(6) 매토邁廬(mai-ro)는 곧 매라邁羅(mai-ra)로 『위지』 한전에 마한의 한 나라로 보이는 만노萬廬(man-ro)국國에 다름없다. 그러나 그 지명에는 두 개의 후보지가 있다. 그 첫 번째는 전주全州 시산군屎山郡의 마서량현馬西良縣이고, 두 번째는 무주武州 북흥군伏忽郡의 마사랑馬斯良(ma-sa-ra)현이다. 전자(마서량)는 마사랑麻斯良이라고도 쓰는데, 당이 백제의 옛 땅에 군현을 둘 때 귀화현歸化縣으로 고치고, 다시 그 이웃한 곳에 매라현邁羅縣을 별도로 두었다. 그 점에서 전자에 해당하는 것이 지당하지만, 후자(마사랑)도 모자람이 없는 유력한 후보지라 할 수 있다. 전자는 지금의 전라북도 옥구沃溝이고, 후자는 전라남도 장흥군 회령會寧 지역이다.

(7) 불중弗中(pur-chang)은 일단 앞서 서술한 불사의 다른 표기 내지 생략형이라 생각된다. 그렇지만 역시 또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은, 불사에 비정된 지명으로 (1)에서 언급한 비사·비자만이 다는 아니라는 점이다. 예를 들면 무주의 분차分嗟(pun-cha)군은 또 한편으로 부사夫沙(pu-sa)라고도 쓰므로, 글자의 음에 의하면 비사·비자와 대등한 후보지이다. 또 그 분차군의 영현領縣 중 하나인 비사比史(pi-sa)현도 앞서 (3)의 발라·반나의 예와 같이 본래 분차와 같은 지역이었던 것이 분할되어 한자를 다르게 한 것뿐으로, 어원적으로 분차와 비사도 같은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분차는 오늘날 전라남도 보성군 대포리大浦里 지역이다.

(8) 벽중辟中(piok-chang)의 ‘벽辟’은 전주 벽골磬骨(piok-kor)군의 ‘벽磬’에 다름없다. 벽골은 또한 피골辟骨·피성辟城·벽지辟支·벽성避城으로 쓰는 사례가 이를 입증해 준다. 오늘날의 전라북도 김제 지역이다.

이상 장황하게 백제왕이 남제에 요구한 신하의 봉지封地 이름을 살

펴보았다. 그렇다면 그것이 어떠한 면에서 임나 문제와 관계가 있는 것일까? 앞의 여덟 개 지역의 위치 비정이 정확하다고 확신할 수 없는 것도 있지만, 크게 잘못되지 않았다면, 북쪽으로는 전라북도 서북부를 하나의 광역으로 하고, 남쪽으로는 전라남도의 남부 연안을 하나의 광역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백제는 한성漢城을 잃고 웅진熊津(공주)을 새로운 도읍으로 하였기 때문에, 만약 중신重臣의 봉국封國으로 주어진 지명이 사료에 나타난 바와 같다면,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한쪽으로 치우친 지역이 선택될 리는 없다. 그것은 어떠한 간에 실제의 봉국과 봉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앞에서 서술한 것과 같은 지역이 선택된 것은, 추측건대 그러한 지방을 새로이 백제의 영유로 공인해 달라고 하는 중대한 저의에서 나타난 것은 아닐까? 487년에 있었던 대산성 탈환 싸움 뒤, 백제가 그 남쪽으로 더 나아갔음은 자연스러운 형세이며, 그 실현의 한 방편으로써 남제의 승인을 요구한 것이다. 그러한 방편이 취해진 것은 임나에게는 최잔의 결과였으며 또한 최잔의 원인이기도 하였다.

3. 상다리 이하 4현의 할양

백제의 남진은 그 뒤 10여년이 지나자 점차 임나에 직접적인 문제로 다가왔다. 그 첫 번째로 들 수 있는 사건은 508년 백제의 탐라도耽羅島(제주도) 정복이다. 508년은 계체천황繼體天皇 2년에 해당한다. 『일본서기』에는 그 해, “12월 남해南海 중 탐라인耽羅人이 처음 백제국과 통하였다.”라고 한 기사가 보인다. 아무것도 아닌듯한 이 기사, 백제의 전라도 경략이 우선 육지에서는 종결되고, 이제는 바다를 건너 탐라도까지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대개 한국 사료에서는 이보다 앞서 476년에 처음으로 “탐라국이 방물을 백제에 바쳤다.”라고 하는 기사가 확인되고, 498년에는 “탐라가 공부貢賦를 닦지 않아 왕이 친히 무진주武珍州에 이르니, 탐라가 그것을 듣고 사신을 보내 그 죄를 빌어, 곧 그쳤다.”라고 하는 기사가 있다. 그러므로 백제와 탐라의 관계를 반드시 508년이 처음이라 결론지을 수는 없다. 앞의 『일본서기

』 기사는 ‘남해중南海中’이라는 세 글자가 암시하듯이, 본래 백제 사료에 의거 한 바이다. 그것은 종래의 관계에 하나의 변화로, 백제의 적극적인 압박에 의한 복속 관계 확인을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하겠다.

다음 해인 509년 백제의 임나 진출은 두 번째 단계로 나아간다. 『일본서기』 계체천황 3년기에, “봄 2월 사신을 백제에 보냈다. 임나의 일본 현읍縣邑에 있는 백제의 백성 중 도망쳐 본관本貫을 잃은지 3·4세世 된 자를 뽑아 모두 백제에 돌려보내 본관에 소속시켰다.”고 하는 기사가 그것이다. 임나 땅을 문제 삼기 전에 임나 사람을 문제 삼은 것이다. 백제 사람들이 도망쳐 임나 강역으로 들어왔다 하는 것은, 한반도 북부와 중부 지역 사람들의 터전이 오랫동안 고구려와 백제의 교전지가 되어 생업이 안정되지 못했기 때문에 점차 남하하여 임나의 강역으로 들어온 것이다. 그 수가 자못 많았다는 것도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바야흐로 그렇게 도망친 사람들이 3세 내지 4세가 지났고, 그 세대로 거슬러 올라가 가려낸다는 것이다. 그 백성을 돌려보낸 일의 규모는 『일본서기』 본문에 짧게 서술된 것과 달리, 자못 큰 사건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러한 사건이 일어남은 결국 백제의 국력이 향상되고 임나에서 일본의 힘이 쇠잔해졌음을 보여주는 것 외에 그 무엇이 있었던 것이다. 백제가 임나로 진출한 세 번째 단계는 그렇게 예언되고 있었다. 임나의 쇠퇴에 거의 결정적 사건이 된 이른바 사현四縣의 할양割讓은 그로부터 3년 뒤에 실현된다.

512년 여름 4월, 수적신압산穗積臣押山[호츠미노오미오시아마]을 백제에 보내 축자筑紫[츠크시]의 말 40필을 백제에 주었다. 압산押山[오시아마]은 백제로 간 단순한 사자使者가 아니라 다리국수哆唎國守로 새로이 임명된 것이라 생각된다. 겨울 12월, 백제는 사신을 보내 공물을 바치고 별도로 표表를 올려 ‘임나국任那國의 상다리上哆唎, 하다리下哆唎, 사타娑陀, 모루牟婁 4현縣’을 할양割讓해 달라고 청하였다. 그 청한 표에는 수적신압산이 일본 조정에 아뢰어 올린 말이 이어져 있다. 이르기를, “이 사현四縣은 백제에 가까이 붙어있고, 일본과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아침저녁으로 통하기 쉽고, 닭과 개의 울음소리도

어느 쪽의 것인지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백제에게 주어 그 나라에 합친다면 굳게 지키는 계책으로 그보다 좋은 것이 없습니다. 비록 백제에게 주어 그 나라에 합친다 하여도 후세에 오래도록 위태롭지 않다고 보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따로 떨어져 있다면 과연 지금 이후 몇 년을 잘 지킬 수 있을지 자신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그것을 백제에 주는 것이 좋은 계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이 때에 대련대반금촌大連大伴金村[오호무라지 오토모노 카나무라]은 현지 당국자로서 압산의 의견에 동의하여, 곧 대련물부추룩화大連物部麤鹿火[오호무라지노 모노노베노 아라카히]를 조칙을 전하는 사신으로 하여 난파難波[나니와]의 객사로 보내, 청하는 대로 사현의 땅을 내려 주는 뜻의 조칙을 백제의 사신에게 전해주었다. 그런데 추룩화의 처가 강고하게 남편을 말리며 말하기를, “일찍이 바다 저쪽 금은의 나라 고려·백제·신라·임나 등은 주길신住吉神께서 응신천황應神天皇[오진텐노]에게 준 나라입니다. 그리하여 신공황후神功皇后[진구코고우]와 대신 무내숙례武内宿禰[타케우치노 스쿠네]는 일찍이 그 나라마다 관가官家[미야케]를 두어 바다 저쪽의 번병蕃屏으로 하였습니다. 그 뒤 오랜 세월이 지나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만약 지금 떼어서 백제에게 준다면 본래 정해진 것에서 어긋나는 것이 되므로 후세의 비난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추룩화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가르쳐 알려준 바는 이치에 합당하지만, 천황의 명을 등질 수는 없소.”라고 하였다. 그 처는 다시 충고하며 말하기를, “병이 있어 조칙을 알리는 사신의 일을 수행할 수 없다고 하세요.”라고 하였다. 추룩화는 마침내 그 말을 따랐다. 이에 사신을 바꾸어 조칙을 전하여, 청하는대로 임나의 사현을 백제에게 주었다. 이때 대형황자大兄皇子[오호에노미코]는 사현을 사여하는 평의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그 뒤에 그것을 알고 놀라워하고 뉘우치며, “응신천황이 관가를 둔 나라를 가며이 여겨 다른 데에 주는 것은 가당치않다.”라고 하였다. 곧 별도로 사신을 난파로 보내어 그 뜻을 백제의 사신에게 알리려 하였지만, 이미 전해진 조칙을 거두어들이지는 못하였다(계체천황 6년기).

사현 할양의 중대성은 앞서 언급한 사료를 통해서 보더라도 추측하기에 어렵지 않다. 그럼에도 종래 사현에 대한 위치 비정은 소극적으로 매우 좁은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 이는 사현의 ‘현’자에 구애되었기 때문이다. 사현의 땅은 다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사현 할양의 중대성은 그런 점에서 재확인 될 것이다.

먼저 상하로 구별하여 부른 ‘다리哆哪’는 어디일까? 그 후보지로 두 곳을 들 수 있다. 첫 번째는 아유카이 후사노신[鮎貝房之進]이 제안한 금강 상류의 전라북도 동북부에서 충청남도 동남부에 이르는 지역이다. 그 이유는 그 지방에서 ‘다리’라고 하는 지명이 분화하여 어느 ‘다리’, 어떠한 ‘다리’라고 하는 식으로 뒷날 군郡 또는 현縣의 이름이 되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곧 다음과 같다.

(1) 마돌현馬突縣은 한편으로 마진馬珍·마등량馬等良이라 쓰는 것을 통해서 볼 때, 그 어원은 ma-tor[마돌]에 가까웠던 것으로 생각된다. 오늘날 전라북도 전주에서 동남쪽으로 약 7리 떨어져 있는 진안군 마령면馬靈面이다.

(2) 난진아현難珍阿縣에서 진아珍阿의 어원 또한 tar-a[돌아]에 근사하다. 또 다른 이름으로 월량月良이라 쓰는데, 월月的 한국어 뜻이 tar[달]이고, 량良은 어미의 음 ‘r’을 드러낸 것이다. 난難(na)은 대대의 뜻으로 생각된다. 오늘날의 전라북도 진안 지역이다.

(3) 난등량현難等良縣은 앞의 진안에 인접하며 서북쪽으로 10여리 떨어져 있는 고산현高山縣의 다른 이름으로 생각된다. 오늘날의 완주군 고산면高山面 지역이다. 등량等良(tung-ra)은 진아珍阿를 달리 쓴 것으로, 본래 같은 지역이 분리된 것이다.

(4) 진동현珍洞縣(珍同縣)의 진珍(tor, tar)은 (1)의 마진의 진珍과 같다. 오늘날의 전라북도[현재는 충청남도] 금산군 진산면珍山面 지역이다.

(5) 황등야산군黃等也山郡의 야也는 고지명에서 ‘r’의 음인 경우가 있으므로, 등야等也 두 자는 (3)의 등량等良과 같은 것이며, 또한 to-ra[토라], tur[톨]에 근사한 어원으로 상정된다. 오늘날의 충청남도 논산군 연산면連山面 지역이다.

이상의 여러 군현은 그 지역이 서로 연결하는 하나의 단위를 이루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이를 ‘다리’ 지역이라 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상하로 나누어 보면, [전북 내륙에서 북쪽으로 흐르는 금강] 상류 곧 남부 지방인 (1)·(2)·(3)·(4)를 상다리, 하류 즉 북부 지방을 하다리라 부른 것이 아닌가 한다. 이와 같은 추론을 뒷받침하는 사료는 이미 앞서 기술한 475년 백제의 천도 기사이다. 한성漢城이 함락되고 다시 남쪽의 구마나리久麻那利(웅진熊津)에 도읍이 재건되는 기사에서 “구마나리는 임나국의 하다호리현下嗚呼喇縣의 별읍別邑이다.”(『일본서기』 분주分注)라고 하였다. 구마나리 즉 오늘날의 충청남도 공주는 앞에서 기술한 (5) 연산의 서북쪽 8리의 땅에 인접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의 ‘다리’ 후보지는 전라남도 서남부 영산강 동쪽 일대의 지방이다. 이 지방 또한 앞의 첫 번째 지방 못지않게 넓은 범위에 걸쳐 ‘다리’의 이름이 분화되었음이 인정된다.

(1) 무진주武珍州의 원음은 mu-tar에 가깝다고 생각된다. 그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은 주주 동쪽 1리에 있는 주의 진산鎭山을 무등산無等山(또는 무진구武珍丘, 서석산瑞石山이라 함)이라 하는 것이다. 무등과 무진이 서로 통합[對譯]은 분명하다. 오늘날의 전라남도 광주 지역이다.

(2) 월나군月奈郡은 월월을 혼동한 tar-na[달나] 또는 그에 가까운 것이 원어였다고 생각된다. 군郡 남쪽 0.5리에 월나산月奈山이 있는데, 군의 이름은 그 산의 이름에 입각한 바라 생각된다. 그 산을 고려시대에는 월생산月生山이라 쓰고, 조선시대에는 월출산月出山이라고 썼는데, 생생과 출출은 공통적으로 한국어에서 na[나오다]의 뜻이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전라남도 영암 지역이다. (1)의 광주에서 남쪽으로 12리 떨어져 있다.

(3) 구사진혜현丘斯珍兮縣의 진珍은 무진의 진과 같이 tar 또는 tor로 발음된다. 오늘날 광주 서북쪽 4리 전라남도 장성군 진원면珍原面 지역이다.

‘다리’의 후보지는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남북으로 두 지역이 있는데, 모두 상하 두 구역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넓은 범위에 이른다. 상하 두 다리는 크게 하면 남방(전라남도 서남부)을 상

다리, 북방(전라북도 동북부)을 하다리로 비정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와 같이 비정할 경우 지나치게 넓은 경향이 있어, 역시 남 또는 북 어느 한 구역에서 가운데를 기준으로 하여 다시 상하로 나누는 것이 적절하다. 이 경우 남쪽이든 북쪽이든 그것은 쉽게 결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른바 상다리·하다리는 앞에서 든 여러 ‘다리(주·군·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남쪽 또는 북쪽에 대한 선택은 다음의 사타와 모루의 위치 및 범위와도 관계가 있으므로 그것을 통해 생각해 보겠다.

덧붙여 말하면 상·하 두 자는 옛 뜻[古訓]에서 상上을 ‘오코시’, 하下를 ‘아루히’ 또는 ‘아로시’라 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것이 한국어임은 별도로 ‘남가라南加羅’의 남南을 또 ‘아리히시’라고 하는 것에서도 추측될 뿐만 아니라, 후대의 한국어에서 前前을 arp[앞]이라 하고 하下를 a-rai[아래]라고 하는 것에서도 아로시·아루시의 ‘아로’ 또는 ‘아루’가 그 고어에서 전사傳寫된 것임을 확신할 수 있다. 아로시의 ‘시’는 조사이다. 그렇다면 상上을 ‘오코시’라 읽는 이유에 대해 예전부터 어떠한 해석도 없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제시해보겠다. 한국어에서 견肩·노臑·우臑·갑胛은 모두 os-koi[어깨]라 하고 ‘前前’에 대한 ‘배후背後’의 의미이다. 오코시의 ‘오코’는 이 os-koi[어깨]의 고어에서 따온 것이 아닐까 한다.

다음으로 사타沙陀는 어디일까? 아유카이 후사노신은 다리를 위에서 서술한 것과 같이 전라북도의 북부에서 충청남도의 동남부에 걸치는 지방에 비정한 것과 관련하여, 그 동북방 멀리 척량산맥脊梁山脈을 넘어 경상북도 상주 지역에 비정하였다. 그 근거는 상주의 옛 이름 사랑벌沙梁伐의 사랑沙梁(sa-tor)이 사타에 가까운 음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주를 또한 사도沙道(sa-to)라 이름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짐작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도를 보면 누구나 의아해하듯이, 다리를 아유카이 후사노신과 같이 비정한 상태에서 사타를 상주에 비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동떨어진 감이 있다. 그로 인해 별도로 그 후보지를 찾아보면, 전라남도 구례군 지방이 아닐까 생각된다.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권40) 구례현求禮縣 고적조古跡條에 “사등촌부곡沙等

村部曲(또는 사도沙圖라 하고, 현 동쪽 5리에 있다)”라고 하는 사등 또는 사도가 사타의 음에 가깝기 때문이다. 이는 매우 불안한 비정이지만, 다른 곳이 전혀 짐작되지 않으므로 시험삼아 말해볼 뿐이다.

다음 모루牟婁는 어디일까? 아유카이 후사노신은 전라북도 진안군 용담龍潭의 옛 이름인 물거勿居(mur-ko)현에 비정하였지만, 그것은 매우 편이한 비정으로 그대로 따를 수 없다. 그래서 다시 살펴보니, 그와 관련하여 『삼국사기』 지리지의 무주武州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개의 군 또는 현 이름을 찾아내게 되었다.

(1) 무시이군武尸伊郡(mu-r-i)은 뒷날 무령군武靈郡, 지금의 전라남도 영광 지역이다.

(2) 모랑부리현毛良夫里縣(mo-ra-pu-ri)은 무시이군武尸伊郡의 영현領縣으로 무시의 북쪽 6리 뒷날 그리고 오늘날의 전라북도 고창 지역이다.

(3) 물아혜군勿阿兮郡(mur-a-xoi)은 무시이武尸伊의 남쪽 10리인 전라남도 함평과 무안 지역이다.

종합하면 모루는 전라남도의 서부, 영산강 서쪽의 연안 지대이다. 앞의 세 곳은 앞서 다리와 같이 처음에는 넓은 하나의 지역을 이루었던 것이 뒷날 분화하여 이와 같이 구별하여 쓰이고 일컬은 것이다. 모루의 땅을 이와 같이 비정함은 앞서 보류해 두었던 다리의 후보지를 남쪽으로 해야 하는가 북쪽으로 해야 하는가의 문제에 유력한 암시를 제공한다. 나는 다리를 모루의 동쪽에 이웃한 영산강 동쪽(광주-영암) 지방이라 생각한다.

요컨대, 512년 백제에게 준 이른바 사현은 적어도 오늘날 전라남도 서쪽 절반을 점하는 광대하고 중요한 지역이었다. 이 지역을 백제에게 주었다고 하는 사실을 앞서 서술한 487년의 대산성帶山城 싸움과 함께 생각해 보면, 이는 명목상 할양·양도라 했지만 실질적으로 백제가 전라남도 대부분을 영유하는 것을 승인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백제의 진출은 사현의 영유로 완결되지 않는다. 이어 다음 해에 기문己汶·대사帶沙 지방을 요구하게 된다.

4. 기문 · 대사의 할양

513년 여름 6월, 사현四縣 할양의 직접적인 책임자 수적신압산穗積巨押山[호즈미노오미오시아미](『백제본기百濟本記』에서 말하는 왜倭의 의사이마기미意斯移麻岐彌[오시아마키미])은 책임지고 있던 다리국哆唎國이 백제의 영유가 되었기 때문인지, 백제의 사자를 이끌고 [일본] 조정으로 돌아왔다. 백제는 그때 오경박사五經博士 단양이段楊爾를 보내 별도로 아뢰기를, “반과국半破國은 신臣의 나라 기문己汶의 땅을 약탈했습니다. 청하건대, 하늘의 은혜로움으로 시비를 가려 본래 소속된 바로 돌려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겨울 11월 조정에서 백제·신라·안라·반과 등의 사자를 불러 놓고, 기문과 대사帶沙를 백제에게 준다는 뜻의 조칙을 내렸다. 같은 달 반과는 사자를 보내 진귀한 보물을 바치며 기문의 땅을 요구하였지만, 결국 들어주지 않았다.(계체천황繼體天皇 7년기)

앞 해에 있었던 사현 할양은 임나의 역사에서 말하면 크게 퇴보하는 사건이었지만, 그러한 일이 벌어진 것은 그에 상응하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백제는 그와 같이 중대한 요청을 제안할 수 있는 힘을 갖추었고, 요청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러한 정세에 도달해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 또한 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던 사정하였고, 받아들여도 좋은 정황이었다. 백제가 그와 같이 대담한 요청을 할 수 있었던 그 실력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군사력이기보다 오히려 문화력이라 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처음 보이는 오경박사 단양이를 보낸 일이 그것을 보여준다. [고대 일본의] 백제 문화 수입과 그 문화인의 도래渡來는 종래 이미 오래도록 지속되어 왔지만, 이 시기에 이르러 비약적으로 발전한다. 말하자면, 오경박사는 앞 해에 사현을 요청한 대가이며, 또 그 보증이기도 하다. 백제 문화의 수입은 그것으로 하나의 변환점이 되어 계획화되었다. 오경박사는 잠시 파견되는 것으로, 귀화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것이 이미 암시하는 바와 같이, 박사는 해를 정해 놓고 교대제로 문화 수입의 일을 주관하였다. 뒤에 서술할 바와 같이, 3년 뒤인 10년 병신(516년), 같은 오경박사 고안무高安茂가 보내져 단양이를 대신한다. 오경박사가 역사에 보이는 경우는 겨우 이

2회의 두 사람에 그치지만, 사실은 상당히 뒤 시기까지 계속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규모도 확대되었다고 생각된다. 아래에 서술할 바와 같이, 그것은 553년 및 554년에 여러 박사의 교대 사실에 관한 상세한 기록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생각한다면, 사현의 할양은 단순히 임나에 대한 통치가 후퇴한 것 만이라 할 수는 없다.

이어 백제는 반과국이 기문을 약탈한 것을 하소연하지만, 그것은 모양새를 바꾼 기문 할양 요청이라 할 수 있다. 즉 반과를 운운하는 것은 문헌상의 조작에 지나지 않는다. 반과국은 한국 사료에서 본피本彼이고, 오늘날의 경상북도 성주 부근에 비정된다. 당시 임나 북부의 대표적 세력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일본서기』에 보이는 반과와 백제와의 영토 다툼은 단순히 반과 한 나라와 백제의 일이 아니라, 가라 여러 나라 전체와 백제의 영토 다툼으로 이해하지 않을 수 없다. 다툼의 대상이었던 기문은 이마니시류[今西龍] 박사가 상세히 고찰한 바와 같이, 중국 사료(『한원翰苑』 소인所引 『괄리지括地志』의 일문逸文)에 보이는 기문천基汶川 유역으로, 기문천은 지금의 섬진강蟾津江에 비정된다. 백제가 ‘기문의 땅’을 요청하자 [일본] 조정에서 ‘기문·대사를 주었다고 하는 것으로도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그곳은 섬진강의 중류에서 하류에 걸치는 지금의 진라남도 동남부로, 경상남도와 경계를 이루는 지방이다. 대사는 『삼국사기』 지리지의 강주康州로, 하동군의 옛 이름인 한다사韓多沙와 악양현嶽陽縣의 옛 이름인 소다사小多沙의 다사多沙와 다름없다.(한韓=han은 한국어에서 ‘크다’의 뜻이다.)

기문·대사의 할양 요청은 『일본서기』에 또 별도로 실려 있다. “백제왕이 하다리국수下哆唎國守 수적압산신穗積押山臣[호츠미노 오시아마노 오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조공하는 사자使者는 늘 해안의 험한 절벽을 피하기 위해, 그리고 매번 바람과 파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다. 그로 인해 가져가는 공물이 물에 젖어 모두 망가지고 못쓰게 된다. 청하건대, 가라의 다사진多沙津을 신臣(백제왕)이 조공하는 통로로 삼게 해 달라.’고 하였다. 압산신은 그 청에 따라 조정에 아뢰어 알렸다. 조정에서는 물부이세련부근物部伊勢連父根[모노노베노 이세노무라

지 치치네]과 길사노吉士老[키시노 오키나] 등을 보내 [다사]진津을 백제왕에게 주었다.”라고 하였다(계체천황 23년기).

이와 같이 전라남도 서부에 비정되는 사현의 할양에 이어, 그 동쪽인 기문·대사(섬진강 중류 및 하류 일대)가 백제 영역으로 인정되자 가라의 여러 나라들은 배후를 잃은 결과가 되었다. 일본의 방침을 원망하여 더욱 반항적 경향으로 되었음은 당연한 일이다. 514년 3월 반과국을 중심으로 하는 가라의 여러 나라는 자탄子呑과 대사에 성을 쌓고 만해滿奚와 연합하여 일본에 대비하였다. 또한 이열비爾列比·마수비麻須比에 성을 쌓고 마차해麻且奚·추봉推封과 연합하여 사졸과 병기를 모아 신라를 압박하였다.(계체천황 8년기) 서쪽의 자탄 및 만해의 명확한 위치는 알 수 없지만, 대사와 나란히 나타나는 것에서 볼 때, 진주 서쪽 섬진강 방면의 산간 지대라 할 수 있다. 동쪽 신라 방면의 이열비·마수비의 ‘비比’는 ‘촌村’의 뜻 pur[불?]의 음역임은 말할 것도 없다. 이열비·마수비·마차해 세 곳에 대해서는 종래 경청할 만한 설이 없었는데, 이열비는 혹시 『삼국사기』의 장산군獐山郡 자인현慈仁縣의 옛 이름 노사화奴斯火(nu-sa-pur=nus-pur=nur-pur)에 비정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이를 증명하는 것은 이 현이 소속되어 있는 장산군의 이름이다. 장산獐山の 장獐(뜻은 no-ru[노루])은 노사奴斯의 의역義譯이다. 마수화·마차해는 명확히 알 수 없다.

추봉에 대해서는 종래 ‘봉封’이 ‘비比’ 또는 ‘발挾’이라 하여 화왕군火王郡 현호현玄驍縣(현풍玄風)의 옛 이름인 추량화推良火에 비정되었지만, 밀성군密城郡[현재의 경남 밀양시]의 옛 이름 추화推火가 보다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추화가 추량화보다 추봉에 더 가까울 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아직 낙동강 동쪽의 대구 지방이 신라의 영유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방어선이 현풍에 있었을 리가 없기 때문이다. 이를 추화라고 한다면 앞의 이열비와의 관련에서 볼 때도 이치에 합당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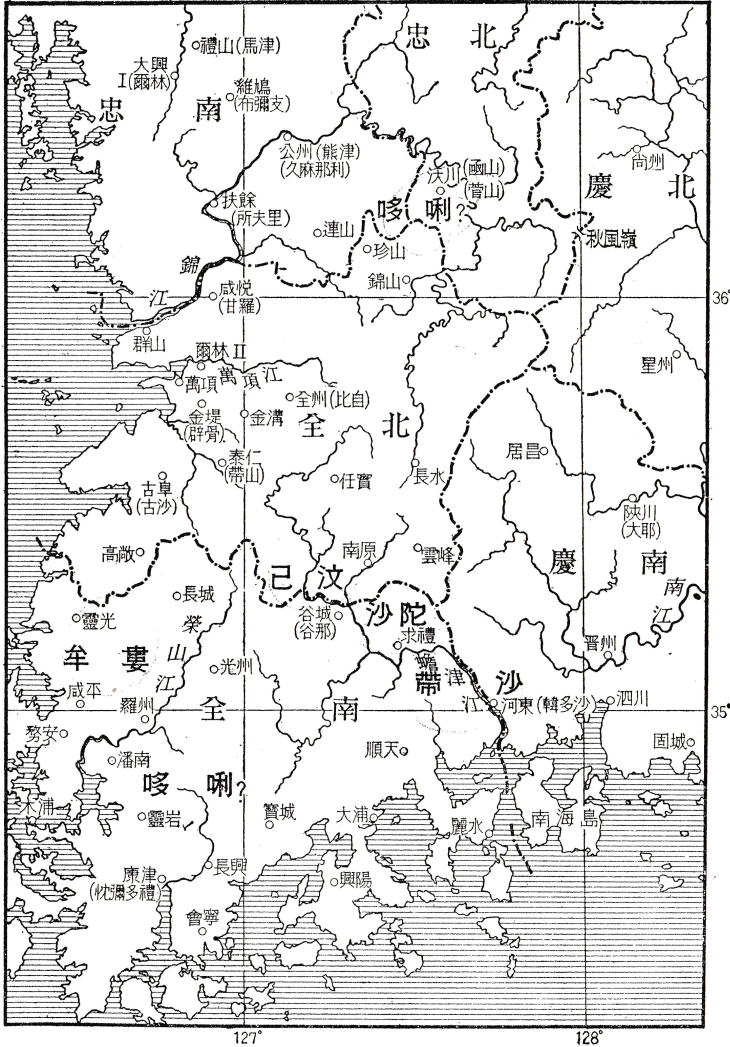
이열비·추봉을 이와 같이 비정한 바에 입각하면, 당시 임나와 신라의 경계는 대략 지금의 자인慈仁(경북 경산)과 밀양을 연결하는 선이며, 바꾸어 말하면 밀양강密陽江 및 그 연장선에 해당한다고 추측된다.

다음 515년 여름 2월, 백제의 사자 문귀장군文貴將軍 등이 본국으로 돌아갈 때 물부지지련物部至至連[모노노베노 치치노 무라지]을 함께 보내 대사의 나루를 내어준다는 조칙을 전하는 사신으로 하였다. 일행은 사도沙都 섬에 이르러 반파국이 이탈하여 스스로 방어한다는 정황을 전해 듣고, 문귀장군은 신라로 가는 길로 북상하였고, 지지련은 수군 5백을 이끌고 곧바로 대사강(섬진강 하구)으로 나아갔다. 그러나 역시 반파의 군사에 포위되어 곤궁함이 약 반년에 이르렀다.『일본서기』에 의하면, 이 사건은 봄 2월부터 여름 4월에 걸쳐 기술되어 있는데, 저자는 그 시기를 ‘약반년約半歲’이라 하여, 지나친 감이 있다.] 마침내 물리나 문모라汶慕羅라고 하는 섬에서 대기하였다.(계체천황 9년기). 사도 섬이라 하는 곳은 오늘날 진해만의 앞을 덮고 있는 거제도이다. 사도라는 이름은 섬의 북쪽에 있는 사등포沙等浦 또는 사등성沙等城에 남아 있다. 문모라라는 섬은 명확히 알 수 없지만, 아마 서쪽 방향의 섬진강 하구 앞에 있는 어느 섬이라 생각된다.

다음 해인 516년 여름 5월, 백제왕은 전부前部 목협불마갑배木荔不麻甲背를 사신으로 하여 문모라에 대기하고 있는 물부지지련 등을 기문에서 맞이하게 하였다. 물부련은 다시 섬진강 하구로 들어가 기문에서 백제의 도성에 이르러, 기문의 땅을 내어 주는 칙서를 전하는 사명使命을 수행하였다. 백제가 [물부련을] 위로하고 상을 주는 것에 특히나 정성을 극진이 하였음은 당연한 일이다. 가을 7월 물부련이 돌아갈 때, 백제는 또한 장군을 보내고, 동시에 오경박사 한漢 고안무高安茂를 보내, 앞의 단양이와 교대해 줄 것을 청하여 허락을 받았다(계체천황 10년기). 백제는 이때 또한 별도로 사신을 내어 고구려에서 우호를 맺기 위해 보낸 사자 안정 등을 인도하여 일본에 입조시켰다. 아마도 고구려 사자가 확실히 일본에 이른 사례는 이때의 안정 등이 처음일 것이다.

그로부터 10년 뒤 임나에 대한 사정은 명확히 알 수 없다. 그러므로 일본과 백제와의 관계도 각별히 언급할 것이 없다. 다만 백제에서 523년 5월 무령왕武寧王이 죽고(재위 23년) 성명왕聖明王[성왕]이 즉위한다. 사정이 명확하지 않다고 하여, 물론 정세의 발전이 없었음을 의미

하지는 않는다. 아니, 알 수 없는 이 10년 동안에 가장 큰 사건이 있었다. 그것은 백제가 사현을 획득하고 기문·대사를 영유한 것에 대한 반발로, 가라와 신라가 연합하고 그로부터 일어난 신라의 팽창, 즉 신라의 가라 침략이다.



<지도 2> 충청·전라도 방면

VI. 임나의 쇠퇴(속)

1. 가라와 신라의 통혼

가라의 여러 나라가 일본을 멀리하고 신라에 의지하는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신라와의 통혼 정책이다. 522년 봄 3월, 가라 어느 한 나라의 국왕이 신라에 통혼을 요청하자, 신라는 그 요청에 응하여 이찬伊漣 비조부比助夫의 여동생을 보낸다.(『삼국사기』) 여기서 가라의 어느 한 국왕이라고 함은 앞의 반과국半破國王인지, 뒤에 언급할 대가라국왕大加羅國王인지 판단할 수 없지만, 한국 사료에 의하면 대가라국의 왕이라 해야 할 것이다. 통혼으로 보낸 여자에 대해 『일본서기』에는 ‘신라왕의 딸’이라 하였고, 또 다른 한국 사료(최치원崔致遠 지음撰 『석순웅전釋順應傳』 일문逸文)에는 ‘이찬夷粲 비지배比枝輩의 딸’로 되어 있다. 여기서 관위 이찬과 인명 비지배는 각각 『삼국사기』의 이찬伊漣과 비조부比助夫에 해당함은 말할 것도 없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반과국을 중심으로 한 가라는 처음 신라를 공격하는 태도로 나아갔지만, 신라의 실질적인 세력을 인식하여, 금세 신라와 연합하여 백제가 동쪽으로 진출하는 것을 막는 방향으로 돌아섰다. 이는 다른 의미에서 신라에 귀복을 요청한 것이었다. 이 때 신라는 법흥왕法興王이 즉위한지 9년 된 해로, 마침 국력이 한층 새로운 단계로 발전하여 영토를 서쪽으로 넓힐 기회를 노리고 있었으므로, 그 통혼 요청을 조속히 실현하였다.

513년의 기문己汶·대사帶沙 할양부터 앞의 통혼과 그 파탄에 이르기까지 10여 년 동안에 일어난 일을 『일본서기』에서는 한 곳(계체繼體 23년기 3월 조)에 일괄하여 서술하였다. 즉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서기』에는 백제왕의 요구에 응하여 압산신押山臣[오시아마노 오미]이 대사의 할양을 조정에 아뢰는 것, 조정에서 칙사(물부이세련부근物部伊勢連父根[모노노베노 이세노 무라지치치네])을 파견하여 나루[津]를 백제에게 준다는 것을 기술하였다. 그리고 그것에 이어 “이에 가라왕이 칙사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이 나루는 관가官家[미야케]가 두어진 뒤 신선이 조공하는 나루가 되었는데, 어찌 갑자기 바꾸어 가

까운 나라에게 줄 수 있습니까? 처음 봉한 바의 영토와 맞지 않습니다.’라고 하였다. 칙사는 그 항의로 인해 직접 백제왕에게 주는 것을 꺼려, 물려나 큰 섬으로 들어가 따로 녹사錄史를 보내 부여扶餘에 주었다. 그로 인해 가라는 신라와 우호를 맺고 일본을 원망하게 되었다. 가라왕은 신라왕의 딸과 결혼하여 드디어 자식을 낳았다. 신라왕이 처음 딸을 보낼 때 함께 100명을 딸려 보내 딸의 시종으로 하였다. 가라는 그들을 받아들여 여러 현에 나누어 두고, 신라의 의관衣冠을 입게 하였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시종들이 신라의 의관을 버리고 가라의 옷을 입으므로) 아리사등阿利斯等(가라왕)은 그들의 옷이 바뀐 것에 분개하여 사자를 보내, (시종들을) 불러 돌려보냈다. 그것을 들은 신라왕은 크게 부끄러워하며 딸을 되돌아오게 하고자하여, ‘앞서 그대의 초빙을 받아들여 나는 바로 혼인을 허락하였지만, 이제 일이 이와 같이 되었으니 딸을 돌려보내 줄 것을 요청합니다.’라고 하였다. 가라의 기부리지가己富利知伽가 답하여 말하기를, ‘부부가 되었는데, 어찌 다시 떨어질 수 있겠습니까? 아래에 자식도 있습니다.’라고 하여 신라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신라는 마침내 지나가는 길에 있는 도가刀伽·고과古跛·포나모라布那牟羅 세 성을 함락시키고, 또 북쪽 변경의 다섯 성을 함락시켰다.”(계체천황 23년기)

이 한 구절의 사료는 본래 편년사의 기술이 아니라 함은 말할 나위 없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어느 한 부분도 『일본서기』의 연월일(529년=계체 23년 3월)에 맞지 않는다. 물부이세런부근이 칙사로서 백제에 갔다고 하는 것은 이미 서술한 515년 물부지지런의 파견이고, 가라왕이 신라에 통혼을 요청한 것 또한 이미 기술한 522년의 일이었다.

통혼이 깨진 경위에 대해 앞의 사료는 다분히 설화적으로 서술되어 있지만, 결국 신라의 임나 침략이 단서가 되었다는 것은 의심할 바 없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 결과로써 도가 이하의 세 성 및 북쪽 변경 다섯 성의 함락은 아래에 서술할 바와 같이 530년, 또는 그 이후의 일이며, 그에 이르기까지는 더 지적해야 할 여러 개의 조항이 있다.

그 첫 번째는 524년에 있었던 신라왕의 움직임이다. 즉 그해 9월 신

라의 법흥왕이 “남쪽 경계를 순수巡狩하며 영토를 개척하니, 이 때 가야왕이 와서 함께 만났다.”고 하는 기사가 『삼국사기』에 보인다. 이 짧은 기사는 2년 전의 청혼에 의해 가라국, 즉 넓게 말해 임나에 있는 여러 나라의 사정을 자세히 살피고 남쪽으로 진출할 기회를 엿본 것을 말한다. 남쪽 경계의 구체적 지명을 알 수 없어 유감이지만, 그래도 그것은 신라가 남쪽으로 영토를 넓히는 첫 단계, 첫 해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로부터 불과 8년 만에 신라는 임나 경략의 전반기를 완결하는데, 금관국金官國의 항복이 곧 그것이다. 그 8년 동안의 침략 사실은 『삼국사기』에 전혀 전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다시 『일본서기』로 되돌아오지 않을 수 없다.

2. 금관국의 신라 투항

신라왕이 남쪽 변경을 개척한 해로부터 횡수로 3년이 지난 527년 여름 6월, 일본조정은 근강모야신近江毛野臣[오후미노 케나노 오미]에게 무리 6만을 이끌고 임나로 가서 신라에게 습격당한 남가라南加羅·타기탄曺己呑을 부흥시키게 하였다. 그런데 모야신毛野臣[케나노 오미]은 축자筑紫[츠쿠시]에 이르러 그 나라의 국조國造[쿠니노 미야즈코] 반정磐井[이하위]에 의해 막혀 나아가지 못했다. 아마도 반정은 몇 년 전부터 계획하여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이때 신라 정토군 파견에 맞추어 일을 일으키고, 화국火ノ國[히노 쿠니]과 풍국豊ノ國[토요노 쿠니]에 웅거하며 [모야신] 군사의 움직임에 방해하려 하였다. 조정에서는 물부대련추록화物部大連麤鹿火[모노노베노 오호무라지 아라카히]를 대장군으로 하여 반정을 토멸하였다. 추록하麤鹿火[아라카히]는 다음 해 겨울 11월에 이르러 축자의 어정군御井郡[미이노 코호리]에서 반정을 죽이고 그 반란을 평정하였다.(계체천황繼體天皇 21·22년기)

그리하여 그 다음 해인 529년 봄 3월, 조정에서는 거듭 모야신을 안라安羅에 보내 신라에 조칙을 내려 남가라·타기탄을 다시 세우도록 하였다. 백제는 장군 군윤軍尹 귀마나貴麻那와 갑배마로甲背麻鹵를 안라에 보내 조칙을 듣게 하였다. 신라는 [일본의] 관가官家[미야케](임

나)를 깨뜨린 것을 두려워하여 대인大人을 보내지 않고 부지夫智 나마예奈麻禮와 해奚 나마예奈麻禮(나마예奈麻禮는 신라의 관위官位 17등에서 제11위이다)를 보냈다. 이에 안라는 새로이 높은 당堂을 만들어 칙사勅使를 맞았는데, 이 때 그 나라의 국주國主는 칙사의 뒤를 따라 당의 계단을 올랐다. 국내의 대인으로써 당에 오를 수 있었던 사람들은 한둘에 그쳤고, 백제의 사인使人조차도 당 아래에 있게 하였다. 모야신은 수개월 동안 당상에서 모의하는 것이 겨우 두세번에 지나지 않아, 백제 사인들의 원한을 샀다.(계천천황 23년기 3월)

여기서는 신라가 병합한 곳을 남가라·타기탄이라 명시하고 있다. 이를 앞에서 서술한 524년 신라왕이 남쪽 경계를 개척한 땅이라 한다면, 일단 사건의 맥락은 이어진다. 그런데 아래에 서술할 바와 같이, 적어도 남가라(금관국)의 병합은 529년 이후이기 때문에, 신라의 남하가 분명하였음은 인정되지만, 이때 명시된 국명은 수사가修史家の 추기라 해야 할 것이다. 백제·신라 각각의 사자를 소환했다는 것은 상당히 계획적인 목적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뒷날(흠명천황欽明天皇 2년기) 백제왕의 말에, “신라에 속아 천황을 분노케 하고, 임나의 원한을 산 것은 과인의 잘못이다. 나는 깊이 반성하여, 하부下部 중좌평中佐平 마로麻鹵, 성방城方 갑배미노甲背昧奴 등을 보내 가라로 나아가 임나의 일본부에서 만나 서로 맹세하였다.”라고 한 것이, 이때의 일을 [529년 3월, 계체기 23년] 말하는 것임은 인명이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의심할 바 없다(매노昧奴=마나麻那). 즉 모야신의 본래 임무는 신라와 백제가 임나를 침략하지 못하게 맹세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백제 사인의 원한을 샀다”고 하는 표현에서 살필 수 있듯이, 유효한 결론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실력을 바탕으로 한 신라의 진출은 이미 어떠한 것으로도 막을 수 없는 현실이었다.

그런데 안라의 고당高堂 위에서 이루어지는 회의가 정체되어 있던 사이, [일본의] 임나[조정]에서는 다시 국왕 기능말다한기己能末多干岐(어느 나라의 왕인지 알 수 없음)를 일본에 보내 신라가 경계를 넘어 침략하는 사실을 말하며 도움을 청하였다. 그로 인해 조정에서는 사신

을 보내 기능말다한기와 같이 가서 임나에 있는 모야신에게 조서를 내려 한기가 하소연한 사실을 조사해 신라와 임나의 화해를 주선시켰다. 그로 인해 모야신은 웅천熊川을 본거지로 하여 다시 신라와 백제 두 나라의 왕을 스스로 소집하니, 신라는 구지포례久遲布禮를 보내고, 백제왕은 은솔恩率 미등리彌騰利를 보냈다. 두 나라의 왕이 스스로 처음부터 오지 않자 모야신은 크게 화를 내어 두 나라의 사신을 돌려보냈다. 이에 신라왕은 별도로 대신大臣 이질부례지한기伊叱夫禮智干岐(이사부異斯夫)를 보내 무리 3천을 이끌고 모야신이 있는 곳으로 가서 조칙을 듣게 하였다. 모야신은 그 군세를 두려워하여 웅천에서 다시 기질기리성己叱己利城(구사모라久斯牟羅)으로 옮겨갔다. 이질부례지한기는 다다라多多羅(도비鞞鞞)의 들판에 머물면서 감히 귀복하지 않고 석 달을 기다리면서 빈번하게 조칙 듣기를 청하였지만, 모야신은 끝내 조칙을 알려주지 않았다. 그로 인해 이질부례지한기는 부근에 있는 4개의 촌을 습격한 뒤 모든 사람을 이끌고 본국으로 돌아갔다.(계체천황 23년기)

모야신이 처음 본거지로 삼은 웅천은 뒷날의 웅신현熊神縣으로 지금의 경상남도 창원군 웅천면 지역이다. 신라의 군세를 두려워하여 옮겨가 머무른 기질기리성은 구사모라, 즉 뒷날의 굴자군屈自郡으로 오늘날의 마산부馬山府 지역이다(기질己叱=구사久斯=굴자屈自). 또한 이질부례지한기가 머무른 다다라의 들판이 지금의 부산 부근이라 함은, 부산의 서남쪽 약 3리에 있는 다대포多大浦라는 이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한기가 습격한 4개의 촌에 대해서는 『일본서기』에 두 가지 설이 전해지고 있다. 첫 번째는 금관金官·배벌背伐·안다安多·위타委陀이고, 두 번째는 다다라多多羅·수나라須奈羅·화다和多·비지費智이다. 두 설 중에 전자의 위타는 후자의 화다의 다른 이름으로 생각되고, 후자의 수나라는 전자 금관의 원어로 생각된다. 수나라는 soi-nara[쇠나라] 즉 ‘금의 나라’라는 뜻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두 설이 있고, 또 각각의 위치는 명확하지 않지만 수나라(금관)가 김해, 다다라가 부산 부근인 것으로 미루어 보아 네 개의 촌이 낙동강 하구 지방이라는 것은 의심할 것이 없다. 사읍四邑[4개의 촌] 습격의 정확한 연월은 앞의

사료에서는 자세히 알 수 없다. 그에 대해서는 곧 아래에서 다루겠다.

모야신이 바다를 건너온 다음 해인 530년 가을 9월, 임나의 사자가 [일본 조정]에 와서 모야신의 무능과 폭정을 보고하여 말하기를, “모야신은 구사모라에 사택을 짓고 머무른 것이 이미 2년이 되었고, 그 사 이 정사를 듣는 것을 소홀히 하고 늘 백성을 괴롭힙니다. 예컨대, 지금 임나 정치의 주요한 한 가지가 일본인과 임나인을 판별하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일본인과 임나 여자의 결혼이 많아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의 국적에 관한 쟁송입니다. 모야신은 그 수습이 가능하지 않자 빈번히 서당誓湯(쿠가타치 : [옳고 그름을 가리기 위하여 신에게 맹세시킨 다음 끓는 물에 손을 담그게 하는 일])을 두어, 진실을 말하는 자는 반드시 데이지 않고, 거짓을 말하는 자는 데일 것이라 하여, 서당에 빠뜨려 삶아 죽인 자가 많습니다.”라고 하였다. 천황은 그 만행을 듣고 사람을 보내 모야신을 소환하였는데, 모야신은 임나에 와서 아직 조칙詔勅을 성사시키지 못함을 부끄럽게 여겨, 조정으로 돌아가는 것을 연기해 달라고 청하였다. 또한 그 당시 임나에 있던 조정의 사신 조길사調吉士[츠키노키시]가 모야신보다 먼저 돌아가 임나의 실정을 전할까 두려워하여, 조길사에게 무리를 이끌고 이사지모라성伊斯枳牟羅城으로 가서 그 성을 지키게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볼 때, (임나의 왕) 아리사등阿利斯等은 줄곧 모야신에게 조정으로 돌아갈 것을 권유했지만, 그것을 듣지 않자 반대하는 마음이 생겨 신라와 백제에 사신을 보내 병사를 청하였다. 모야신은 백제 병사를 배평背評(능비기부리能備己富利)에서 맞아 싸웠으나, 상하고 죽은 자가 절반에 이르렀다. 이때 아리사등은 모야신의 진중에 있었는데, 백제는 아리사등을 크게 꾸짖으며 모야신을 내어 놓으라 하였다. 모야신은 버티며 성을 견고히 하니, 백제와 신라의 병사들은 함께 성을 포위하며 좋은 땅을 점령하였다. 한 달 동안 지속되었지만, 가히 사로잡지 못하자 신라는 구례모라久禮牟羅에 성을 쌓고 군사를 이끌고 돌아갔다. 또 돌아갈 때에 그 길에 있는 등리지모라騰利枳牟羅 · 포나모라布那牟羅 · 모자지모라牟雌枳牟羅 · 아부라阿夫羅 · 구지파다

지久知波多枳 다섯 성을 빼앗았다.(계체천황 24년기)

한편, 백제 군사는 다음 해인 531년 3월에 안라의 곁탁성乞毛城에 집결한 기록이 『일본서기』에 인용되어 있는 『백제본기百濟本記』에 보일 뿐, 그 이후의 소식은 알 수 없다.

이상과 같이 진행되어 결국 최종 결론으로 파악되는 사실이 한국 사료에 전하는 금관국의 신라 투항이다. 즉, 532년 금관국주金官國主 김구해金仇亥는 왕비 및 세 아들과 함께 나라의 보물을 바치며 신라에 투항하자, 신라는 최고의 관위인 상대등上大等를 내려주고 그 본국을 식읍食邑으로 하는 것을 허락하였다.(『삼국사기』 법흥왕法興王 19년기)

524년의 신라왕이 남쪽 경계를 개척한 이후, 이에 이르기까지 8년간 신라 남방 진출의 구체적 실상은 오로지 『일본서기』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각각의 사실을 그대로 『일본서기』의 연월일에 맞추어 적용하는 것은 자못 위험하다. 왜냐하면 그것에 해당하는 『일본서기』는 임나를 주체로 한 이야기식의 서술이 많고 신라의 움직임에 관해서는 항상 막연하게 서술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신라가 도가刀伽·고과古跛·포나모라布那牟羅 세 성을 빼앗고 또 북쪽 경계의 다섯 성을 빼앗았다는 것은 통혼이 과탄된 것의 결말로써 기술한 것이므로, 그 정확한 연월은 자세히 알 수 없다. 또한 신라의 상신上臣 일질부례지한기가 4개의 촌을 약탈한 것은 모야신과의 교섭이 성립되지 못한 결과였기 때문에, 그 정확한 연월을 나타낼 수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구례모라의 축성과 등리지모라 이하 5성을 빼앗았다고 하는 것은, 구질모라久叱牟羅를 포위 공격하여 발전된 사실로 인정될 뿐이다. 게다가 그 기사들 사이에는 중복과 재출再出도 있기 때문에, 그 [8년] 사이에 있는 『일본서기』 기사에 대한 이해는 전체적·총괄적 방법에 의거해야 비로소 가능하다.

그러한 방법에 입각하여 살펴 볼 경우 524년부터 532년에 이르는 사이 역사적 사실로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구례모라를 중심으로 한 북쪽 경계 다섯 성의 점령 내지 축조, 둘째, 금관국이 신라에 투항한 실상으로써 4개 촌의 약탈, 셋째는 그러한 것들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종합적 표현으로써 ‘남가라·탁기탄·탁순 세 나라가 쾌망한 재앙’이 열거된다.

첫째, 구레모라의 발견은 아유카이 후사노신[鮎貝房之進] 연구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이다. 구레(ku-rioi)는 한국어에서 포包的 뜻(싸다)을 sku-ri-ta[꾸리다]라고 하거나, 포苞(꾸러미)를 sku-rom-i[꾸럼이]라고 하는 것에 그 어근語根 skur[꾸리]의 음역音譯이다. 그 이름이 남아 있는 것으로 가장 유명한 것이 오늘날 경상북도 달성군 서남부의 명산인 비슬산毳瑟山の 다른 이름(古名)이 포산苞山(包山)이고, 더하여 그 서남쪽 산기슭 유가면瑜珈面의 옛 이름에서 보이는 구레求禮이다. 그 성터는 오늘날 정확히 보이지 않지만, 현풍과 창녕을 연결하는 노선의 중간에 상정된다.

등리지모라騰利枳牟羅 이하의 5성에 대해 계체천황 24년기에는 구레모라와의 관계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뒤의 흙명천황 5년기에 ‘구레산久禮山の 5성’이라 한 구절이 이에 해당하며, 5성의 대략적인 위치도 추정해 볼 수 있다. 아유카이 씨는 이 5성 하나하나에 대해 현지 비정을 시도했는데, 그 중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아부라阿夫羅와 구지파다지久知波多枳 두 성이다. 즉 아부라는 현풍의 북쪽 교외로 약 0.5리에 떨어져 있는 쌍산현雙山峴의 이름에 남아있다. 그 곳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병산역並山驛 또는 쌍산역雙山驛이 있었던 곳으로, 병산 또는 쌍산이라고도 쓰는 것은 병과 쌍의 한국어 뜻이 a-pur[아우르다]이기 때문이다. 아부라阿夫羅는 그대로 a-pur[아우름]의 음역이다. 그리고 그 병산(쌍산)의 이름이 실제 땅의 형세에서 온 것임은 의심할 바 없다. 아부라성은 오늘날 쌍산현의 남쪽에 흐르는 강의 언덕으로, 현풍의 서쪽 교외에 있는 성하동城下洞의 옛 성터에 비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구지파다지久知波多枳의 구지는 조선시대의 구지산부곡仇知山部曲의 구지仇知, 오늘날 달성군達城郡 구지면求智面의 구지로, 이와 같은 구지久知·구지仇知·구지求智는 한국어에서 ‘함정지지陷穽之地[움푹 들어간 땅]’를 의미하는 kut·kus[굴]의 음역이다. 또한 파다지波多枳는 저底(바닥)를 의미하는 pa-tak[바닥]으로 해석된다. 구지

및 파다지의 이러한 풀이[語解]는 오늘날 구지면 일대의 지형을 이른바 호소지대湖沼地帶라 하는 분명한 사실에 의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그리하여 구지파다지 성은 구지면 성산동의 옛 성터에 비정된다. 이 또한 위의 현풍 성하동과 같이 낙동강 동쪽 언덕에 조성되어 있다.

이 두 성의 위치 비정과 관련하여 생각나는 것은 일찍이 필자가 답사했던 달성군達城郡 화원면花園面 성산동城山洞의 옛 성터이다. 그곳은 대구에서 서남쪽으로 약 4리 떨어져 있는데, 낙동강 언덕에 우뚝 솟은 자연의 암벽을 이용한 작은 성이었다. 강물을 사이에 두고 고령군高靈郡 다산면茶山面的 넓은 흰 모래밭과 구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빼어난 경관이었다. 아직 보지 못한 두 성터의 형세를 어렵지 않게 추측해 볼 수 있었다. 이른바 북쪽 경계의 5성은 오늘날 달성·창녕 두 군의 낙동강 강안 요해지에 배치된 출성出城[외성外城·나성羅城]이었을 것이다.

둘째, 이질부례지한기伊叱夫禮智干岐가 약탈한 4촌의 위치 비정에 대해서는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부산과 김해 지방, 즉 낙동강 하구 지방이라는 것은 부동의 사실이다. 특히 그 중에 금관(수나라)이 포함 되어 있는데, 금관은 뒷날 신라 통일기에 남가랑南加良(남가라)으로 불리지만, 남가라는 단순히 금관의 다른 이름이 아닌, 본래 금관 이하 사읍을 병합한 지방의 총명칭이라 생각된다. 남가라가 금관의 다른 이름이 되는 것은 사읍 중 첫 번째 대표 읍이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셋째, 남가라·탁기탄·탁순 삼국의 패망에 대해서는 논의할 사항이 많다.

(1) 남가라南加羅(아리히시노카라)가 금관국 및 그 주변읍은 앞서 기술한 바와 같고, 그 나라의 멸망은 실질적으로 4개 촌의 약탈에 다름없음이 분명하다.

(2) 탁기탄曷己呑(토쿠코톤)은 한편 탁국曷國으로도 쓰는데 예부터 두 설이 있었다. 그 첫 번째는 탁기탄 3자가 곧 하나의 지명이라 하는 것이고, 그 두 번째는 이를 탁曷과 기탄己呑의 두 개의 지명이라 하는 것이다. 각각의 이유가 있지만, 일단 첫 번째 즉 하나의 지명이라 하는 설을 따른다. 그리고 그곳을 경상북도 달성군 경산(대구에서 동남쪽으로

로 3리 정도)에 비정한다. 경산의 옛 이름은 압독押督이다. 압押(음 ap [앞])은 이미 몇 차례 언급한 것과 같이 앞[前] 또는 남[南]을 의미하는 한국어의 ap, arp[압]의 음역이고, 독督(음 tok[독])은 탁喙의 對譯이다.

(3) 탁순卓淳(토쿠슈)은 한편으로 탁순喙淳이라 쓴다. 그 나라의 이름은 계체천황기 21·23·24년 조에는 전혀 보이지 않지만, 남가라 탁기탄과 거의 같은 시기에 패망했음은 뒤에 서술할 흠명천황 2년기 및 5년기에 의해 알 수 있다. 탁순이 오늘날의 경상북도 대구라 하는 것도 제3장 2절에서 서술한 바이다. 탁순의 패망이 구례산의 점령·축성과 관련 있음은 “신라가 봄에 탁순을 취하고 구례산의 우리 수비병을 쫓아내어 마침내 그것을 가졌다.”라고 하거나, 또 “구례산의 다섯 성을 항복시키면, 탁순국 또한 마땅히 다시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고 하는 부분에서도 분명히 나타난다.

그런데 이 삼국의 패망에 대해 수년 뒤 백제왕이 평하여 말하기를, “탁기탄은 가라와 신라의 경계에 있어, 해마다 공격을 받아 패하고 임나도 능히 구할 수 없으니 그로 인해 망하게 되었다. 또한 남가라는 그 땅이 험소하여 재빨리 대비하는 것이 능하지 않고, 의지할 바도 없어 망한 것이다. 또 탁순은 상하가 이반하여 신라에 스스로 귀부하고 내용하게 되어, 그로부터 멸망한 것이다. 이를 통해 보니 삼국의 패망은 진정 이유가 있다.”라고 하였다[흠명천황欽明天皇 2년 4월]. 또 “탁국이 멸망한 것은 다름 아니라 탁국의 함파한기函跛旱岐가 가라에 탄마음을 가지고, 안으로 신라에 내용하고 가라는 밖으로 싸움을 하니, 이로 인해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함파한기가 신라에 내용하지 못하게 하였더라면, 탁국은 작은 나라이지만 분명 아직 망하지 않았을 것이며 탁순 또한 그러할 것입니다. 탁순의 국왕이 신라와 내용하여 적을 불러들이지 않았더라면, 어찌 멸망하기에 이르렀겠습니까? 널리 여러 나라가 패망하는 그 재앙을 보니 모두 내용하고 탄마음을 품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라고 하였다.[흠명천황 5년 3월]

백제 왕의 말을 통해서 볼 때, 그와 같은 삼국의 패망은 임나사에서 보면 결국 [일본의] 임나에 대한 통제가 와해되는 한 단면이었다. 또

VII. 임나의 멸망

1. 백제의 부여 천도와 임나부흥회의

금관국金官國 왕이 신라에 투항한 다음 해인 534년 5월, 백제는 하부下部 수덕修德 적덕손嫡德孫과 상부上部 도덕都德 기주기루己州己婁를 보내 관례대로 이루어지는 조調를 바치고, 별도로 표表를 올렸다.(안강천황安閑天皇 원년기) 별도로 올린 표의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일본서기』의 다른 예를 보면, 표를 올릴 때는 항상 특별한 사항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한 사례에 비추어 보면, 이 상표는 금관국 왕이 신라에 투항함으로써 인해 신라를 정벌하는 출병을 요청 또는 재촉하거나 임나를 부흥시키는 계획에 대한 것으로 짐작된다.

종전에는 임나의 쇠퇴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발생한 것으로 받아들인 측면이 있었지만, 금관국의 멸망과 특히 그 나라의 왕이 신라에 투항함으로써 인해 일본이 받은 충격은 임나의 문제가 아닌 직접적인 일본 자체의 안위에 해당하는 문제로 중요시되었다고 생각된다. 이는 536년 5월 일본 조정에서 조를 내려 하내국河內國[카후치노 쿠니]·모장국尾張國[오와리노 쿠니]·伊賀國[이가노 쿠니] 등 여러 둔창屯倉[미야케]의 미곡을 멀리 구주九州[큐슈]의 나진那ノ津[나노츠](오늘날의 하카타[博多])의 부근으로 옮기게 하고, 또 가까이 있는 축자筑紫[츠클시]·비肥[히]·풍豊[도요] 삼국 둔창의 미곡도 나진으로 모아 관가를 만들고 특별히 대비케 하였는데, 이는 모두 임나의 형세에 대응한 대책이었다.

이러한 국내적 대책을 실시한 것에 이어, 더욱 적극적인 응급책으로 다음 해인 537년 겨울 10월 대반대련금촌대伴大連金村[오호토모노 오호무라지 카나무라]에게 명하여 그의 아들 대반반대伴磐[오호토모노 이히]과 협수언狹手彦[사네히코]을 현지 임나에 보내 신라를 치게 하였다. 이때 대반반은 축자에 남아 그 나라의 국정을 장악하고 대비하였으며, 협수언이 바다를 건너가서 임나를 평정하고 백제를 구원하였다.(선화천황 2년기)

그 다음 해(538년, 성명왕聖明王[성왕] 16년) 백제는 60여 년간의 도성 웅진熊津을 버리고 소부리所夫里로 천도하고 국명을 부여扶餘라 하였다. 이 3번째 천도 경위에 대해 온전히 전해지는 바는 없지만, 앞서 웅진으로 천도한 이유는 직접적인 고구려 공격의 결과였다. 이 세 번째 천도 또한 북적北敵의 압박이 작용하였다고는 생각되지만, 오히려 회생의 용기로써 대규모의 새로운 도읍 경영을 계획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새로운 도읍지 부여는 옛 도읍지 웅진에서에서 남서쪽으로 겨우 8리 떨어져 있고, 같은 금강의 물줄기를 북쪽으로 두르고 있는 지형이다. 웅진이 남쪽으로 평야를 거의 가지지 못한 협소한 분지인 것에 비해 부여는 금강을 가운데에 두고 양쪽으로 넓은 평야를 가지고 있으며, 게다가 요해要害의 산지도 멀지 않았다. 백제는 군사적으로 한성 함락(475년) 이후 퇴보를 거듭해 왔지만, 그 대신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남쪽 임나의 대부분을 외교 교섭으로 획득하고, 나아가 문화적으로 중국 남조南朝와 통교하여 남조 사람들이 많이 귀화하여 현저한 진전을 이루었다고 추찰된다. 그러므로 부여 천도의 본래 취지는 축적된 남조문화의 재생·재현과 함께, 수도의 군사적 방어력을 강화하는 목적도 있었다. 이는 지금도 부여에 남아 있는 내성과 외성의 유적 규모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백제의 방위는 오로지 북적 고구려를 상대하는 것이었다. 부여로 도읍을 옮긴 직후 541년, 백제는 신라에 우호를 요청했고, 신라는 그것을 받아들였다. 백제의 양면외교는 여기서부터 점차 드러난다. 양면외교란 일본에게 신라를 적대 관계로 보이게 하고, 고구려에 대해서는 신라와 협력하는 계책을 말한다. 일본이 백제를 전적으로 신뢰한 것은 현명하였다고 할 수 없지만, 역시 임나 회복을 위해서는 백제의 움직임 없이는 불가능하였고, 백제가 말하는 바와 요구하는 바를 허락하지 않을 수도 없었다. 부흥책 내지 한반도에 대한 계책 실행의 맹주로써 백제의 왕을 선택한 것이다.

백제와 신라의 우호가 이루어진 451년 여름 4월, 임나 여러 나라의 왕들, 즉 안라국의 차한기次旱岐 이탄해夷吞奚·대불손大不孫·구취유

리久取柔利, 가라국의 상수위上首位 고전해古殿奚, 졸마국卒麻國의 한기旱岐, 산반해국散半奚國 한기의 아들, 다라국多羅國의 하한기下旱岐 이타夷他, 사이기국斯二岐國 한기의 아들, 자타국子他國의 한기 등은 임나의 재상(길비신吉備ノ臣[키비노 오미])과 함께 백제로 나아가 [일본] 조정의 조서를 들었다. 백제의 성명왕은 한기 등에게 이르기를 “일본천황의 조서는 오로지 임나를 재건하라는 것이다. 지금 어떠한 계책으로 임나를 일으켜 세울 수 있겠는가? 그대들은 진심을 다하여 천황의 뜻을 받들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한기 등이 대답하기를, “이미 두 세번 신라와 의논하였지만, 그 의논한 바를 천황에게 아뢰지는 않았습시다. 그리고 신라에 기별을 넣어 교섭을 거듭하려 하였지만, 신라는 답하지 않았습시다. 그러므로 지금은 백제·임나가 함께 사신을 내어 천황에게 아뢰는 것이 적절합니다. 진심으로 임나를 일으키는 것은 대왕(성명왕)의 힘에 달려있습시다. 부디 대왕의 가르침을 들겠습니다. 더욱이 신라의 공세는 임나에 다다라 탁순, 탁기탄, 남가라와 같이 남아 있는 우리 나라들도 패망하는 화를 입을 수 있으니 사태가 다급합니다.”라고 하였다. 성명왕이 말하기를, “옛적 우리 선조 초고왕 速古王과 귀수왕貴首王 때에 안라·가라·탁순의 한기들이 처음으로 사신을 보내 통교하여 두터이 우호를 맺고 자제子弟가 되어 항상 번영하기를 열망하였다. 그런데 신라에 속아 천황의 분노와 임나의 원한을 사게 된 것은 나의 잘못이다. 나는 깊이 반성하여 하부下部 중좌평 中佐平 마로麻鹵와 성방城方 갑배매노甲背味奴 등을 가라에 보내 임나일본부에 모여 서로 침입하지 않기로 맹세한 것이 지난 529년의 일이다. 그 뒤 이를 염려하여 임나를 다시 세울 생각을 아침저녁으로 잊지 않는다. 지금 천황의 조서에서 이르기를 속히 임나를 세우라고 하였으니, 이에 경들과 모의하여 임나국을 세울 좋은 계책을 강구하고자 한다. 또 임나국의 경계에서 신라를 불러 천황의 조치를 받을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 물을 것이다. 그 다음 사신을 보내 천황에게 아뢰어 참가 교시를 받들 생각이다. 만약 그 사신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을 때, 신라가 빈틈을 살피 임나를 침략한다면 나는 바로 가서 임나를 구

원할 것이니, 걱정할 것 없다. 그러나 방비를 잘하고 조심하기를 잊어서는 안된다. 또한 경들이 말하는 바, 탁순국과 같이 경들의 나라들도 폐망하는 화를 당할까 두렵다하는데, 생각건대 탁순 등의 폐망은 신라가 강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탁기탄은 가라와 신라의 경계에 있어 매년 신라의 공격을 받았는데, 다른 임나 제국의 도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망한 것이다. 또 남가라는 그 땅이 협소하여 빠르게 방비하지 못하고 급히 도움을 청할 곳을 찾지 못해 망한 것이다. 그리고 탁순은 상하가 분리되어 있고 신라에 내응하는 자가 있어 마침내 멸망한 것이다. 그것에서 보면 삼국의 폐망은 모두 그러한 연유가 있다. 예전에는 신라가 고구려에 도움을 청하여 임나와 백제를 공격했음에도 오히려 이길 수 없었다. 어찌 신라 혼자 임나를 멸망시킬 수 있겠는가? 지금 경들과 힘을 합하고 마음을 하나로 하여 천황의 힘에 의지한다면, 임나는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였다. 임나 여러 나라의 왕들은 백제 왕의 말을 듣고 하사한 물건을 받아 기뻐하며 본국으로 돌아갔다.(흠명천황 2년기)

생각건대, 십수년 전(529년) 천황의 조칙은 임나에서 베풀어져 백제 사신도 그곳에 와서 임나 여러 나라의 왕들과 함께 조칙을 듣는 것이 상례였다. 그런데 지금의 경우 그때와 다르게 임나 여러 나라의 왕들이 백제로 가서 조칙을 듣고 있다. 이것은 백제의 지도권이 강대해진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더불어 임나에 있는 일본 사신이 무능하며 책략이 없었던 결과이기도 하다. 또 한편으로, 백제는 이 모임에 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었다. 그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첫 번째는 가까운 금관국의 사례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임나 여러 나라가 잇따라 신라에 종속되어 가는 형세이므로 그것을 적극적으로 막고 제지해야 하는 것이었다. 백제는 최근 십수년간 신라의 지배권 아래로 들어간 남가라·탁기탄·탁순을 예로 들어, 그들의 폐망은 신라가 강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 나라들이 초래한 바로 단정하고, 회의에 참여한 나머지 임나 나라들의 왕들에게 자중과 자위를 독촉하고 있다. 그러나 세 나라의 폐망을 그와 같이 이야기한 것은 피상적인 견해로, 사실은 종래 오

랫동안 행해져 온 임나 여러 나라의 연합 형태가 신라의 통일과 확대에 따른 공세에 타격을 입고 이기지 못한 것의 증명일 수 밖에 없다.

이때 백제에 모인 임나 여러 나라의 한기들은 당시 남아 있던 임나의 거의 모든 한기들이라 생각된다. 그러므로 앞서 언급된 7개 나라의 위치를 살펴보는 것은 이 시기 임나의 범위를 고찰하고 설정하는 가장 유용한 방법이다.

(1) 안라安羅는 이미 누차 언급된 바와 같이 경상남도 함안 지역이다.

(2) 가라加羅는 앞서 신라에 병합된 ‘남가라’의 북쪽에 있는 가라, 이른바 대가라로, 경상남도 고령 지역이다.

(3) 줄마卒麻는 그간 전혀 알 수 없는 것으로 여겼지만, 아유카이 씨의 김해 북쪽, 낙동강 강안의 생마면 마사리馬沙里的 한 부락인 ‘솔마驪馬’(또는 솔리마驪理馬)에 비정하였다. 솔마는 지금 작은 부락의 이름에 지나지 않지만, 그곳은 낙동강과 밀양강의 합류점 남쪽 강안江岸에 해당하는 요충지이며, 『삼국지』 한전의 변진주조마국弁辰走漕馬國도 아유카이 씨가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솔마를 다르게 쓴 것이 아닐까 한다. 확정지어 말할 수 없지만, 유력한 후보지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4) 산반해散半奚는 『삼국사기』 지리지의 초팔해草八兮로, 경상남도 합천군 초계 지역이다.

(5) 다라多羅는 이미 기술한 바와 같이 경상남도 합천 지역이다.

(6) 사이기斯二岐는 종래 명확히 할 수 없는 곳으로 여겨 왔지만, 아유카이 씨의 『삼국사기』 지리지의 신이현辛爾縣이며 통일신라시대 신변현新繁縣으로, 오늘날의 경상남도 의령군 부림면 신반리新反里라 하였다. 이는 확정적으로 단정하여 말할 수 있다.

(7) 자타子他는 방훈傍訓[한자 옆에 다는 토]으로 ‘코타’라 읽으려 하였으므로, 기타己他的 잘못된 표기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 기타는 『삼국사기』 지리지의 거타居陔로 봄이 가장 타당하므로, 오늘날의 경상남도 거창 지역이다. 덧붙여 거타는 오늘날의 거창 지방을 중심으로 하여 남쪽은 진주 지방까지 미치고 있으며 뒤 날(685년경) 그 남부를

분할하여 진주총관晋州總管이 두어졌다. 그러므로 거타는 진주의 옛 이름이라 할 수 있다.

이상의 지역을 총괄하면 동쪽은 낙동강, 서쪽은 남강 유역과 지리산 동쪽 기슭, 북쪽은 가야산을 경계로 하고, 남쪽으로는 바다에 이르는, 오늘날의 경상남도 서쪽 절반과 경상북도 일부가 남아 있는 임나의 모든 영역이 된다.

그런데 백제는 임나 여러 나라의 왕을 소집하는 것은 한편으로 성공하였지만, 불안함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안라에 있는 일본 사신(일부분의 재상[宰])이 신라와 통교하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니,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이미 교섭하고 있다는 소문이 자자하였다. 그로 인해 이해 가을 7월 전부前部 나솔奈率 비리막고鼻利莫古, 중부中部 나솔奈率 목협매순木劬昧淳, 기신紀臣 나솔奈率 미마사彌麻沙 등을 안라에 보내, 안라·임나의 집사執事를 소집하여 임나 회복에 대한 성명왕聖明王[성왕]의 말을 전했다. 이때 집사라는 것은 국왕 즉 한기 아래의 집정관이라 할 수 있는 위치일 것이다. 백제 사신이 말한 내용은 결국 앞서 임나의 여러 나라 왕에게 말한 바와 같은 의미의 같은 내용이었다. 이르기를, “옛날 나의 선조 속고왕速古王과 귀수왕은 한기들과 처음으로 화친을 맺고 형제가 되었다. 이에 우리(백제왕)는 그대들(임나의 한기들)을 자제로 하고, 너희는 우리를 부형으로 하여 함께 천황을 섬겨 강적(고구려)을 막아 나라를 평안히 하고 집안을 온전히 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이에 생각해 보면, 나의 선조와 당시 한기의 맹세는 밝은 해와 같이 분명하다. 그 뒤로 부지런히 이웃 나라와 우호를 닦아 두터이 하는 것은 과인이 항상 바라는 바이다. 그런데 어찌 가벼이 신라의 거짓된 말을 들어 몇 해 사이에 한탄스럽게도 본래의 뜻을 잃는단 말인가? 옛말에 후회함에 이르러서는 이룬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다. 위로는 구름 사이에 달고, 아래로는 샘 안에 이르기까지 신에게 지금 맹세하니 옛적의 허물을 고치고, 하나도 숨기는 것 없이 하고자 하는 바를 밝혀서 정성이 신령에게 통하여 깊이 스스로 반성하기를 또한 마땅히 해야 한다. 대저 듣자 하니, 뒷사람은

능히 앞서사람의 궤적을 좇아지고 선조의 업을 왕성하게 하여 업적을 이루는 것을 귀하게 하는 것이라 하였다. 그러므로 지금 선대의 화친을 좋게 여겨 숭상하고 삼가 천황의 조칙에 따라 신라가 빼앗은 나라 남가라와 탁기탄 등을 다시 빼앗아 본관에 되돌려 임나로 옮기고 백제는 다시 영원토록 그 나라들과 부형이 되어 항상 일본을 섬기고자 한다. 이는 내가 먹고 잘 때에도 잊지 않고 기원하는 바이며, 과거를 뒤우쳐 지금을 경계하는 마음으로 수고로이 하는 바이다. 신라가 감미로운 말로 속이는 것은 천하가 두루 아는 사실이다. 너희들은 함부로 그 말을 믿어 계약에 빠져버렸다. 지금 임나와 신라는 국경을 접하고 있고, 늘 적절히 방비를 두어 지키는 것을 느슨하게 하지 않았다. 이에 경계해야 할 것은 속임수에 빠지고 함정에 걸려 나라를 잃고 집안을 망쳐 신라의 포로가 되는 것이다. 과인은 그것을 생각하니 스스로 편안히 지낼 수가 없다. 가만히 들으니 임나와 신라가 책략을 함께 꾸몄다고 한다. 화가 이른 뒤에 후회하고 멸망한 뒤에 다시 일으키려 하는 것은 할 수 없는 일이다. 지금 너희들은 나를 따라 천황의 조칙을 받들어 임나를 세워야 한다. 어찌 성공하지 못할 것을 걱정하는가? 만약 오래도록 본토를 지키고 영원히 구민을 다스리고자 한다면, 그 계획은 여기에 있으니 신중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였다.

성명왕은 이와 같이 임나 여러 나라의 집정관들을 훈계하는 동시에 세 번째 단계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임나에 있는 일본부에도 말을 전하였다. 이는 일본부의 재상(하내직河内ノ直[가와치노 아타이], 아현이나사阿賢移那斯[아케에나시], 좌로마도佐魯麻都[사로마쓰] 등)이 이미 신라와 모의하고 있는 것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성명왕이 임나의 일본부에도] 이르기를, “천황의 조서에서 ‘임나가 만약 멸망한다면, 너희(백제)는 의지할 바가 없어질 것이고, 만약 임나가 일어난다면 너희들은 도움을 얻을 것이다. 지금 다행히 임나를 일으켜 세워 치읍과 같이 되면 너희는 도움을 받아 백성을 편안히 부양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삼가 이 조칙을 살피니 송구한 마음이 가득하여 진심으로 임나가 융성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래도록 천황을 섬겨 지난날과 똑

같이 하고자 한다고 맹세하였다. 지금 경들 또한 조서 그대로 임나를 구원하고 돕는다면 천황이 반드시 칭찬할 것이다. 오래도록 임나에 거주한 경들이 잘 아는 바와 같이 신라는 임나에 피해를 입히고 일본을 막으려 한 것이 오래되었다. 그럼에도 감히 노골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것은 가까이 백제를 꺼리는 것이고, 멀리 일본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본심은 분명하다. 바라건대 이제 그 간극을 살펴, 일거에 병사를 내어 신라를 공격하라. 천황이 조서를 내려 남가라·탁기탄을 세우라고 권유한 것은 단지 수십년 전이 아니다. 그런데 신라가 전혀 책명을 듣지 않는 것도 경들이 아는 바이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경들이 쉽게 감언을 받아들이고 가벼이 거짓말을 믿어 임나를 멸망케 하여 천황을 욕보이게 하는 것이다. 경들은 그것을 조심히 하여 신라에 속는 일이 없도록 하라.”라고 하였다.(흠명천황 2년기)

이와 같이 백제는 임나의 여러 나라 및 임나일본부에 신라와 우호를 맺는 것을 경계시키며, 다른 한편으로 일본 조정의 획득도 잊지 않았다. 곧 다음 해인 542년 가을 7월 기신紀信 나솔奈率 미마사彌麻沙, 중부中部 나솔奈率 기련己連을 일본에 보내 하한下韓 임나任那의 정황을 알리고, 아울러 표문을 올렸다(『일본서기』 본문에는 이 일이 541년 흠명 2년 7월조에 수록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일본서기집해日本書紀集解』의 견해를 따라 3년에 있었던 것으로 한다). 거기서 말하는 하한 임나의 정황이라는 것은, 앞에서 기술한 신라의 진출과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 백제가 군령郡令과 성주城主를 설치한 것, 그리고 주요 사신의 일본 소환을 요청하는 것을 주지로 하는 자못 중요한 일이었다.

당시 백제는 이미 임나 각지에 군령과 성주를 두어 임나의 지배와 수비를 맡고 있었다. 그것은 아마도 530년 출병 이후부터였을 것이다. 지금은 그에 대한 정식적인 승인을 구하는 것이다. 그것은 명목상 신라의 침략으로부터 임나를 구하는 것이라 하였지만, 실은 신라에 앞서 백제가 임나를 침략하는 것에 다름없다. 다음으로 임나일본부의 주요 인물을 일본으로 소환하라고 한 것은, 신라의 임나 침략이 한편으로

그 일본부 사신의 양해를 얻어 진행된 것이라 생각된다. 백제가 그것을 꺼림직하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백제는 직접 일본부의 사신에게는 신라의 계획에 걸려들었다고 훈계하며 간접적으로는 그 사람들을 일본 조정에 탄핵하여 일본으로 소환하는 것을 요청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 해인 543년 여름 4월 미마사·기런 등이 본국[일본]으로 돌아오자 내려진 조칙에서, 두 번째 문제와 관련하여 임나일본부의 신라 통교가 반드시 백제의 말이나 생각대로 문책 되었는지 의문이다. 백제가 지적한 주요 인물인 이나사·마도麻都도 결국 임나가 예전과 같이 부흥한다면 자연히 물러날 것이므로, 지금 그들을 문제 삼을 정도는 못 된다는 의미가 담겨있었다. 일본 조정은 이와 같이 백제 사신에게 답하고, 또한 신라와의 관계를 현지에서 조사하는 사신으로 인가신피歌ノ臣[이카노 오미]을 신라에 보냈다. 첫 번째 문제와 관련해서는 진수련津守ノ連[쓰모리노 무라지]을 백제에 보내 백제의 요구를 기각하고 이르기를, “임나의 하한에 있는 백제의 군령과 성주는 마땅히 일본부에 붙여라.”라고 하였다. 또한 조서로 이르기를 “너희(백제)가 누차 표문을 바쳐 지금 바로 임나를 세워야 한다고 한 것이 이미 10여년이 되었다. 표문으로 그렇게 말하면서도 아직 그것을 이루지 못했다. 임나는 너희 나라(백제)의 동량棟梁과 같은 존재이다. 동량이 부러지면 집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너희는 마땅히 빠른 시일 내에 임나를 세워야 한다. 그러면 하내직 등은 스스로 물러날 것이니, 그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것도 없다.”라고 하였다.

이 지령을 받은 백제는 군신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지만, 임나에 배치해 놓은 군령과 성주의 지배권은 결코 일본 조정의 조칙대로 거둘 수 없다는 결론을 내었다. 그리하여 오로지 ‘임나부흥’이라는 이름으로 군사적 행동을 적극적으로 하게 되었다. 그 실행 수단으로 (1) 거둬 임나의 집사와 여러 나라의 한기들을 소집해 함께 모의하여 일본 조정에 상표로 그 뜻을 알렸다. (2) 임나일본부의 사람들(하내직·이나사·마도 등)을 본거지로 옮겨 줄 것을 다시 표를 보내 요청하기

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달이 바뀌어 그해 12월 백제는 시덕施德 고분 옥高分屋을 임나에 보내 임나의 집사와 일본부의 집사를 소집하였다. 이는 짐작건대, 현지 임나에서 여론을 환기시키는 것에 다름없는 것이었다. 임나 집사들은 정월 초하루가 지나서 가겠다고 답하였다.(흙명천황 4년기)

544년 정월 초하루가 지나서도 임나의 집사들이 백제의 부름에 응하지 않자 백제는 다시 사신을 내어 재촉하였다. 이에 집사들은 스스로 오지 않고 하급의 관리만을 명목상으로 보내 회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하여 2월 백제는 다시 시덕施德 마무馬武, 시덕施德 고분 옥高分屋, 시덕施德 사나노차주斯那奴次酒 등을 보내 일본부와 임나의 한기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미마사·기련·용기다用奇多 등을 일본 조정에 보내자(542년 7월), 미마사 등은 천황의 조서를 가지고 돌아왔다.(543년 4월) 조서에서 ‘너희들은 마땅히 임나일본부의 재상과 속히 좋은 방책을 세워 짐이 바라는 바에 부응하라. 너희들은 그것(임나 재건)에 힘쓰고 남에게 속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진수련을 보내(543년 11월) 조칙을 전하고 임나의 정사를 물었다. 그리하여 일본부와 임나 집사들과 함께 임나의 정무를 논의하고 정하여 천황에게 아뢰 생각으로 두세 번이나 그대들을 소집하였지만, 그대들이 오지 않아 함께 논의할 수 없었다. 지금 진수련에게 머무르기를 요청하고, 따로 빠른 사신을 보내 정황을 천황에게 아뢰 것이다. 3월 10일에 그 사신을 보낼 생각이니, 그 사신이 조정에 도달하면 반드시 그대들에 관한 것도 틀림없이 물어볼 것이다. 그대들 또한 우리 백제의 사신과 함께 사신을 보내 천황의 조칙을 들어야 한다.”라고 하였다.

이때 성명왕은 따로 하내직 등에게도 말을 전하였다. “너희들의 악행을 들은 것이 이미 오래되었다. 너희 선조들도 다 같이 간사함과 거짓을 품고 속이는 말을 해왔다. 위가가군爲歌可ノ君[이카카노 기미](위가기미爲歌岐彌 유비기有非岐[우히키])은 오로지 그 말을 믿어 나라의 어려움을 걱정하지 않고 나의(백제왕) 뜻에 등지고 포박한 것을 저질러 마침내 쫓겨나게 되었다. 너희들이 임나에 와 주둔하면서 항상 나

뿐 짓을 하여 임나는 날마다 이렇게 쇠퇴한 것이다. 낮은 지위에 있으면서 악행을 저지른 것은 작은 불이 산과 들판을 다 태우고 마을로 번지는 것과 같다. 너희들의 악행에 의해 임나가 멸망한 것이다. 나는 이제 사신을 천황에게 보내 너희들을 그 본거지로 옮겨달라고 청할 것이니, 너희들은 가서 천황의 조칙을 들어라.”라고 하였다.(흠명천황 4년기[『일본서기』 원문은 흠명 5년이다.]

이는 백제의 대책이 적극적으로 시행되는 첫 단계로써, 직접적으로 일본부에 공격의 화살을 날리기에 이른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일본부 및 한기들에게 합의의 안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백제 자신들의 열의를 그럴싸하게 보인 것이다. 구체적으로 제시한 안건은 일본 조정에 군사 파견을 요청하고, 그 군대의 식량은 백제가 부담함을 명확히 밝혔다. 그리고 요청한 군사의 인원과 식량을 운반해야 할 곳을 결정하기 위해 한 곳에 모여 그 가부를 의논한다는 것을 더하였다.

이에 일본부 재상이 답하여 말하기를, “임나의 집사들이 백제의 부름에 나아가지 않은 것은 내가 보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천황의 사신이 이르기를, ‘가카이 인가신印歌ノ臣[이카노 오미]을 신라에 보내고 진수련津守連[쓰모리노 무라지]을 백제에 보내 사정을 살피게 하였으니, 그때까지 기다려 스스로 애써 신라와 백제에 가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 뒤 인가신이 신라에 사신으로 간 것을 듣고 쫓아가 일본 조정의 의향을 물었더니, ‘일본부의 재상과 임나의 집사는 신라로 가서 천황의 조칙을 받들어라.’라고 하였습니다. 뒤에 또 진수련이 백제로 가는 도중에 그 땅(임나)을 지나갈 때에, 진수련도 다만 자신은 하한下韓에 있는 백제의 군령과 성주를 물러나게 하라는 명을 백제에 전하기 위해 가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임나의 집사와 일본부의 재상은 백제에 모여 천황의 조칙을 들으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집사들을 보내지 않고 나 자신도 나아가지 않은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이것이 일본부가 백제에 답한 내용이다. 나아갈 수 없다는 이유로 인가신·진수련을 운운한 것은 증명할 수 있는 바가 아니다. 아마도 임나의 한기들이 나아가지 않은 것은 바로 임나의 재신宰臣이 제시하

였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와 같이 [가야의] 한기들은 백제의 부름에 응하지 않으면서도, 실상 [임나일본부의] 재신을 따르고 복종하였던 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백제왕에게 기대하는 바가 컸다. 한기들은 그 속 내를 백제 사신에게 전했다.

3월 백제는 예정해 두었던 두 번째 계획을 시행에 옮겼다. 나솔奈率 아탁득문阿吒得文, 나솔 허세가마許勢歌麻, 나솔 물부가비物部歌非 등을 일본에 보내 표를 올려 이르기, “나솔 미마사, 나솔 기련 등이 돌아와 조서를 주며 이르기, ‘너희들(백제)은 적절히 일본부의 재상과 좋은 계책을 내어 빨리 임나를 세워라. 신중히 경계하여 사람들에게 속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543년 4월) 또 진수련 등이 와서 조서를 주며 임나 재건의 방도를 물었습니다.(543년 11월) 즉 조칙에 따라 일본부의 재상과 임나의 한기들을 불러 그것을 계획하기로 하고 그들에게 말해 두었는데, 그들이 오래도록 오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함께 계획하지 못했습니다. 한기들이 오지 않은 것은 그들의 뜻이 아니라 모두 일본부 집사(아현이나사·좌로마도) 등의 간계에 의한 것입니다. 대개 임나의 여러 나라는 안라를 형으로 하여 그 지시를 따르고, 안라는 다시 일본부를 아버지로 하여 그 뜻을 따릅니다. 그런데 일본부에서는 집사(이나사·마도)가 일본부의 정사를 오로지하여 상관인 재상(적신·길비신·하내신)이 오히려 집사의 지휘를 따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임나를 통제하여 한기들이 백제에 가지 않게 하고, 그로인해 합의한 것을 천황에게 답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으므로, 진수련(기마노케己麻奴跪)을 머무르게 하고 별도로 빠른 사신을 보내 아뢰는 바입니다. 만약 이나사와 마도 두 사람을 안라에 머물러 있게 하여 간사한 짓을 많이 하게 놓아두면, 임나 회복은 어렵고 바다 서쪽의 여러 나라는 반드시 [일본]조정을 따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좌로마도는 한부韓婦의 소생이지만 지위는 대련大連에 이릅니다. 일본부 집사들과 사귀어 변영하고 귀한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히려 신라나마례奈麻禮(제11位)의 관복을 받았으니, 신라에 귀부하였음이 분명합니다. 유심히 살펴보니 이미 두려움이 없는 상태입니다. 아마도 임

나는 그로 인해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까 하며, 임나가 만약 멸망한다면 신의 나라(백제)는 고립되고 위태롭게 되어 [일본] 조정을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옹드려 바라옵건대, 깊이 헤아려 속히 그 두 사람을 본거지로 옮겨 임나를 평안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²⁾

겨울 10월 백제의 사신(득문得文·가마哥麻·가비哥非)이 본국으로 돌아왔다. 그 사신의 첫 번째 임무는 위에서 인용한 바와 같이 이나사·마도 등의 소환을 요청하는 것이었지만, 그에 관한 [일본] 조정의 답은 들어줄 수 없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사행은 실패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조정에서는 백제가 표문에서 말한 것과 그 이면에 지니고 있는 속뜻이 다르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백제는 득문 등의 귀환을 계기로써 그 다음 달 11월 일본부의 재상과 임나의 집사를 다시 소집했다. 그에 응해 나온 인물은 일본부의 길비신, 안라의 하한기下旱岐 대불손大不孫·구취유리久取柔利, 가라의 상수위上首位 고전해古殿奚, 줄마卒麻의 군주, 사이기斯二岐의 군주, 산반해散半奚 군주의 아들, 다라의 상수위 흘건지訖乾智, 자타子他的 한기, 구차久嵯의 한기 등이었다. 이는 백제가 임나 여러 나라의 한기들을 두 번째로 모이게 한 것이다. 그 모임에 나온 인물은 이전의 모임(541년 4월)과 거의 같은 사람들이지만, 구차의 한기는 이전의 모임에 없었다. 구차는 또한 고차古嵯라고도 쓰는데(562년 기사 참조), 『삼국사기』 지리지에서 말하는 고자古自, 『위지』 한전의 변진고자미동국弁辰古資彌凍國에 해당하며 오늘날의 경상남도 고성에 비정된다.

성명왕은 조서를 보고 말하기를, “내가 미마사·기련·용가다用哥多 등을 보내 일본에 입조시킨 바(542년 7월), 그 조서에서 이르기를, ‘빨리 임나를 세워라.’ 하였고(543년 4월), 또 진수련은 와서 임나를 회복했는지 못했는지를 물었다.(543년 11월) 그러므로 이에 경들을 소집한 것이다. 어찌하면 임나를 다시 세울 수 있겠는가? 청하건대 각자의 계

2) 나술 아탁득문 등이 가지고 온 표문은 『일본서기』에 실려 있는 백제의 표문 중 가장 길고 중요한 내용을 지니고 있지만, 예부터 그 문장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여기서는 단지 그 일부분만을 뽑아 앞뒤를 연결하여 인용한다.

책을 말해 보라.”라고 하였다. 길비신과 임나의 한기들이 이르기를, “임나의 회복은 오로지 대왕(성명왕)에게 있습니다. 바라건대 대왕을 따라 함께 조정에 아뢰어 칙을 듣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성명왕이 이르기를, “임나와 우리 백제는 예부터 [일본의] 자제子弟로써 관계를 맺어 왔다. 지금 일본부의 인기미印岐彌[이키미]는 이미 신라의 거짓된 말을 듣고 신라와 피하여 바야흐로 우리 백제를 치려 하고 있다. 옛적부터 신라는 무도無道하여 식언食言을 하는 나라이므로 이미 탁순 등의 나라를 멸망시킨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경들을 불러 이르게 하여 함께 천황의 조서를 받들어 임나의 나라를 회복하고 또한 옛적과 같이 영원히 형제가 되기를 바란다. 가만히 들으니, 신라와 안라의 국경에 큰 강(낙동강)이 있는데 그 주변이 중요한 땅이라고 한다. 나는 그곳을 거점으로 하여 6성을 쌓고 조정에 3천의 병사를 요청하여 성마다 5백의 군사를 채워 우리 백제 병사와 함께 수비를 전담하게 할 생각이다. 그렇게 되면 (530년 경) 신라가 쌓은 구례산의 5성은 스스로 병기를 버리고 항복할 것이다. 탁순국은 그로부터 자연히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조정에 요청한 3천 병사의 식량과 의복은 백제가 공급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계책이다. 다음으로 남한南韓에 백제의 군령郡令과 성주城主를 두는 것이다. 그것은 천황에게 위배되고 조공의 길을 막는다는 오해를 사는 두려움이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강적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 흉악한 무리 신라는 북적(고구려)에 붙었다. 고구려는 강대하고 우리 백제는 미약하다. 만약 남한에 군령과 성주를 두어 방어하지 않으면, 그 강적을 막을 수 없고 신라도 제압할 수 없다. 그러므로 반드시 그것을 두어야 신라를 공격하고 임나를 어루만져 보존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임나는 멸망할 것이다. 이것이 두 번째 계책이다. 다음으로 하내직·이나사·마도 등이 의연하게 임나에 있다면, 아무리 천황이 임나를 회복하라고 조서를 내려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그 사람들을 각각의 본읍으로 돌아가게 해 달라고 요청할 생각이다. 그것이 세 번째 계책이다. 그대들과 일본부의 신하,

그리고 임나의 한기들과 함께 사신을 조정에 보내 천황께 아뢰고 조서를 받을것다고 할 생각이다.”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길비신과 한기들이 답하기를, “대왕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계책은 또한 우리의 마음과 부합하므로 돌아가 일본부의 대신과 안라의 왕 그리고 가라의 왕과 상의하여 함께 사신을 보내어 받들고 아뢰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천번에 한번 얻을 수 있는 기회千載一會입니다. 함께 깊이 생각하여 계책을 내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성명왕이 제시한 세 가지 계책은 지난 543년 경 이래의 문제 내지 계획의 총체적인 계산으로 볼 수 있다. 첫 번째 계책은 낙동강 서쪽에 6성을 쌓아 구례산성을 중심으로, 신라가 쌓은 동쪽 5성에 일일이 대응하게 한다고 하는 것에 다름없다. 군령·성주와 일본부 사신의 소환에 대한 [일본] 조정의 방침은 이미 명시한 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제는 역시 그것을 실현하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다음 해인 545년 여름 5월, 백제의 사신 나솔 기련, 나솔 용가다, 시덕 차주次酒 등을 보내 표문을 올렸다. 또 가을 9월에 백제는 중부中部 호덕護德 보제菩提 등을 임나에 보내고 오뫼의 재물을 일본부의 신하 및 여러 나라의 한기들에게 주었다.(흠명천황 6년기)

기련 등이 가지고 온 표문의 내용은 전혀 알 수 없지만, 추정해보면, 앞 해에 임나의 한기들에게 말한 세 가지 계책에 관한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다음 해 정월, 기련 등이 귀국할 때에 [일본] 조정에서는 좋은 말 70필, 배 10척을 주었다. 여름 6월 백제는 중부 나솔 약엽禮禮 등을 보내 조調를 바쳤다.

이와 같은 백제의 계획(그것은 겉으로 임나 부흥 내지 방어 계획으로 포장한 백제의 임나 선취 계획에 다름없다)이 진행되고 있을 때, 갑자기 일어난 형세의 변화는 또 다른 전개 및 전환이 되었다. 즉 다음 해인 547년 여름 4월, 백제는 전부前部 덕솔德率 진모선문眞慕宣文, 나솔奈率 가마歌麻 등을 보내 구원의 군사를 요청하며 하부下部 동성자언東城子言을 바치고 덕솔德率 문휴마나汶休麻那를 대신케 하였다. (흠명천황 8년기)

형세의 변화에 따른 또 다른 전개라 함은 그 구원병이 임나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백제를 직접 남하하는 고구려로부터 구원해야 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2. 고구려의 남하와 백제 · 신라의 이합

고구려가 남하하는 분위기는 이미 544년 3월 임나부흥회의에서 제시된 백제왕의 세 가지 계책에 보이며, 거슬러 올라가 538년 백제가 부여로 천도한 것도 한편으로 고구려의 압력을 벗어나 다시 일어서기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또한 그 천도에 이어 541년에 신라에 화친을 요청한 한편의 이유도 고구려에 대한 대책에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은 앞에서 서술한 바이다. 그리고 앞 절에서 말한 547년 4월 [일본에] 구원군을 요청한 것은 고구려 병력이 백제의 경계에 더욱 다다랐을 때의 급박한 상황이었다.

다음 해인 548년 봄 정월, 구원군을 요청하기 위해 온 사신 진모선 眞慕宣文 등이 백제 본국으로 돌아갈 때, 조서를 주어 요청한 바의 군사는 반드시 보낼 것임을 전하도록 하였다. 그런데도 여름 4월 백제는 또 다시 중부中部 한솔扞率 약엽례掠葉禮를 보내 아뢰기를, “덕솔 德率 선문宣文 등이 칙서를 받아와서 이르기를, ‘요청한 바의 구원병은 때에 맞추어 보낼 것이다.’라고 하니, 삼가 그 조서를 받들어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올해 정월 신축, 우리가 마진성馬津城을 공격하여 포위했을 때에 고구려 포로의 말에 의하면, ‘우리들(고구려 병사)은 안라국安羅國과 일본부日本府의 부름에 움직여 온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말은 빈말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과연 그러한 부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뚜렷이 알아보기 위해 안라와 일본부를 세 번이나 소환하였지만 모두 오지 않아 아직 진상을 올바르게 알 수 없습니다. 잠시 구원병 보내는 것을 멈추고 다음의 보고를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일본] 조정은 그에 대해, “상주한 것을 들으니 일본부와 안라가 이웃 나라의 어려움(백제가 고구려의 공격을 받는 것)을 돕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 그러나 일본부가 몰래 고구려에 사신을 보내 그 병사를 불러들였다고 하는 것은 믿을 수 없다. 천황이 명했다면 물론 사신을 보냈을 것이다. 천황이 명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함부로 그러한 짓을 했겠는가? 왕은 옷깃을 열고 허리띠를 풀어 조용히 스스로를 편안히 하고 깊이 의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앞서 조칙을 내린 바와 같이 임나와 함께 적절히 힘을 합해 함께 북적(고구려)를 막고 각자의 영역을 지켜라. 안라 사람들이 도망가 빈 땅이 된 지역은 내가 약간의 사람을 보내 충실하게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약엽례 등은 그 조칙을 듣고 윤7월 본국으로 돌아갔다.(흠명천황 9년기)

여기서 먼저 문제가 되는 사항은 백제의 상표문에서 안라와 일본부가 고구려 군대를 불러들였다고 의심하는 내용이다. [일본] 조정의 조칙에는 그러한 일은 없을 것이라 단언하고 있지만, 생각건대 백제가 복종하는 듯 하면서 속으로 배반하는 태도는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또한 임나에 군령과 성주를 배치하는 것과 같이 실질적으로는 신라를 막고 신라에 앞서 임나를 영토로 가지려 하는 야심이 뚜렷이 드러남으로 인해 임나일본부는 그러한 백제의 남침을 막기 위해 고구려에게 남하를 요청했는지도 모르는 일이다. 또는 아래에 서술할 바와 같이, 백제는 그 다음의 상표에서 고구려 병사를 불러들인 것은 이나사移那斯와 마도麻都라고 다시 말하고 있으므로, 고구려 군사를 불러들였다고 하는 것은 그 앞 해에 백 구실로써 꾸민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현지의 임나일본부가 표면적 의심을 받는 바와 같이 불러들였다고 하든, 그렇지 않았다고 하든, 고구려군이 침략해 들어오는 것은 사실이었다. 그것은 [일본] 조정에도 중대한 문제였다. 임나를 온전하게 보호하여 유지하는데 장벽 역할을 하는 백제의 위기였기 때문이다.

다음 문제는 마진성의 위치로, 그해 정월 고구려 군대가 어디까지 진군해 들어왔는가에 대해 알아보는 문제이다. 그 전년[547] 말 이후 고구려의 진군에 관해 전하고 있는 『삼국사기』의 기록을 보면 백제본

기에서 성명왕[성왕] 26년, “봄 정월, 고구려 왕 평성平成이 예濊와 모의하여 한북漢北의 독산성獨山城을 공격했다. 성명왕은 신라에 사신을 보내 도움을 청하였다. 신라왕은 장군 주진朱珍에게 명하여 갑졸甲卒 3천을 이끌고 나아가게 하였다. 주진은 밤낮으로 달려 독산성 아래에 이르러 고구려 군사와 한번 싸워 크게 꺾뜨렸다.”고 하는 기사가 있다. 『일본서기』에서 말한 마진성 전쟁은 『삼국사기』의 독산성 전쟁이다. 이와 같은 설은 『삼국사기』 지리지에 의하면 백제 멸망 직후 당唐이 설치한 주현州縣의 하나로 마진현馬津縣이 있고, 그 옛 이름이 고산현孤山縣이라 하고, 고산현은 다시 옛적에는 오산현烏山縣이라고 하였다. 이는 오鳥자의 음이 고孤자와 독獨자의 뜻(oi)에 통하기 때문이다. 즉 고산孤山·독산獨山은 오산烏山の 의역義譯이다. 그리고 고산현은 오늘날의 충청남도 예산禮山이다. 그렇다면 당시 고구려 군대는 백제 도성(부여)의 북쪽 14~15리까지 가까이 다다라 있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삼국사기』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일단 신라 구원군의 도움을 받아 물리칠 수 있었다. 백제가 처음 일본에 구원을 요청하다가 갑자기 그 구원군 파견을 멈추어 달라고 해 온 것은, 그 전쟁(마진=독산성 전투)의 결과가 백제에게 유리하게 마무리되었고, 신라의 실질적인 도움으로 인해 신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신라의 태도를 당분간 지켜보고자 하는 여유를 찾았기 때문이다.

6월 [일본] 조정은 백제에 사신을 보내 금년 정월 달술 선문이 귀국한 뒤의 소식을 묻고 임나와 함께 힘써 계책을 모의하여 이전과 같이 방어를 충실히 하게 하였다. 10월에는 370명을 백제에 보내 득이신得爾辛(tuk-ni-sir)에 성을 쌓게 하였다. 득이신은 『삼국사기』에 등장하는 덕은德恩(tok-un)에 비정되며, 오늘날의 충청남도 논산군 은진 지역으로, 백제의 도성에서 겨우 3리 떨어진 곳이다. 그러나 일본이 군사를 보내 득이신에 성을 쌓은 것은 고구려 남하에 따른 일본의 진전된 일대 대책이라고는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응급 처치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그렇다 치더라도 문제는 단순한 임나만의 방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백제를 고구려의 남침에서 지키는 것이었다.

백제는 악엽례에 이어 다시 장덕將德 구귀久貴, 고덕固德 마차문馬次文을 보내 표를 올렸다. 그들이 [일본으로] 온 시기는 정확하지 않지만, 구귀 등이 549년 여름 6월 백제로 돌아갈 때에, 조서로 이르기를 “연나사延那斯·마도麻都 두 사람이 몰래 사사로이 사신을 고구려에 보낸 일에 관해서는 마땅히 사신을 보내 그 허실을 물을 것이며, 또한 앞서 부탁한 구원군은 바라는 대로 중지시키겠다.”라고 하였다.(『일본서기』 흠명10년)

이 조서를 통해 보면, 구귀 등의 임무는 그 뒤의 전황을 보고하고 구원군 파견 연기를 거듭 의뢰하는 것이었다. 그와 함께 앞의 표문에서 고구려의 침략은 안라와 일본부가 불러들인 것이라는 의심하였던 바를 바로 잡아, 앞서 배척했던 일본부의 주요인물인 이나사와 마도의 소행이라고 하소연했음을 알 수 있다.

[일본] 조정에서는 일의 급박함과 중대성을 고려하여 백제 사신의 보고만을 믿을 수 없다고 보아, 다음 해인 550년 2월 사자(아비다阿比多[아히타])를 백제에 보내 조서로써 이르기를 “장덕 구귀, 고덕 마진 문馬進文 등이 올린 표문의 뜻에 따라 하나하나 교시하는 것이 손바닥 보는 것과 같은데, 더욱 심정을 갖추어 생각해 둔 바를 모두 말하겠다. 대시두大市頭는 돌아온 뒤 평상시와 다름없다. 지금 보고한 말을 살펴 다시 이 사신을 보내는 것이다. 나솔 마무馬武는 왕(성명왕)의 측근 신하로 위에 아뢰고 아래에 전하는 것이 매우 왕의 마음에 부합하여 왕이 신뢰한다고 들었다. 만약 백제가 무사하고 오랫동안 일본의 관가로서 천황을 받들고자 한다면 마땅히 마무를 대사로 하여 조정에 보내라.”라고 하였다. 또한 거듭 조서를 보내 “고구려의 침략을 방비하는 것을 북돋는 차원에서 화살 30구를 보낸다.”고 하였다. 3월 아비다는 배 3척을 이끌고 백제의 도성 아래에 이르러 한달 정도 머무른 뒤 귀국 길에 이르렀다. 성명왕은 아비다에게 의탁하여 “임나의 일은 조칙을 받들어 굳게 지키겠습니다. 연나사·마도의 일은 문책하는 것도 문책하지 않는 것도 모두 조칙을 따르겠습니다.”라 하고, 이림爾林的 전투에서 사로잡은 고구려의 포로와 노奴 6명을 보냈다. 그리

고 별도로 중부 나솔 피구근皮久斤, 하부 시덕 작간나灼干那 등을 보내 고구려 포로 10명을 바쳤다.(『일본서기』 흙명 11년)

백제 제일의 중신으로 추정되는 나솔 마무를 대사로 파견하라고 요구한 이유는, 위급한 때에 [일본] 조정에서 다시 백제가 일본에게 복종하는 것에 대한 보증을 얻으려고 하는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요구 그대로 마무가 파견되어 왔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다. 또한 542년경부터 집요하게 청원해왔던 일본부의 이나사·마도 소환을 이때에 이르러 포기한 것은 아비다가 사신으로 가서 직접 조사한 결과였거나, 혹은 당면의 문제가 남하해 오는 고구려군을 물리치는 절박한 사태로 전개되어 이나사 등의 존재는 미미한 의미가 되었거나, 없어졌기 때문이거나 하는 점이 그 이유일 것이다.

나라의 도움 가까이까지 공격을 받았던 백제는 마진성 방어에 성공한 뒤 역습으로 나아가 전장을 동북으로 옮길 수 있었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앞서 기술한 아비다가 사신으로 간 해(550년) 정월에 백제는 고구려의 도살성道薩城을 공격하고, 고구려는 백제의 금현성金峴城을 공격했다. 도살과 금현의 위치는 명확히 알 수 없지만 남한강南漢江 중류 유역으로 추정된다. 신라는 이때도 백제와 협력한 것으로 보이며, 두 성은 결국 신라 소유로 돌아갔다. 바꾸어 말하면, 신라의 힘에 의해 고구려군이 북방으로 물러나게 되었다. 그로부터 다음 해인 551년에 걸쳐 백제와 신라의 연합이 형성되어 북진을 계속하여, 백제는 한성 함락(475년) 이후 고구려에게 빼앗겼던 옛 땅 6군郡을 회복하고, 신라는 죽령竹嶺 밖 고현高峴이내 10군郡의 땅을 새로이 획득하였다. 백제가 회복한 6군의 땅은 오늘날의 경기도 절반 정도로 그 북단은 한강의 북쪽 평양(남평양, 오늘날의 京城[서울])이고, 신라가 얻은 10군의 땅은 경기도의 동부에서 강원도의 서부 일대로 생각된다. 그러나 백제는 회복한 땅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결핍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음 해인 552년 일찍이 한성과 평양 지역을 방기하지 않을 수 없었고, 대신 신라가 점령하게 되었다. 신라는 그 다음 해인 553년 한성(남한산)을 신주新州라 하여 새로이 주州를 설치하고 그 방면 통치의 중

심으로 하였다.

백제와 신라의 연합에 따른 북진과 고구려 공격은 신라를 위해 일시 이용된 결과로 끝났다. 백제는 다시 물러나 작은 자신들의 나라를 지키기에 몰두하게 되고, 신라에 대한 보복을 먼저 꾀하였다. 그것을 위해서는 또 가라의 여러 나라를 동반자로 하고, 일본 세력에 의지하는 것밖에는 어찌할 방법이 없었다.

3. 백제의 신라 공격과 임나의 최후

백제가 한성漢城·남평陽南平壤을 버린 552년 5월 백제·가라·안라의 사신으로서 중부中部 덕솔德率 목협금돈木劔今敦과 하나부의 아사비다河内部ノ阿斯比多 등이 [일본 조정]에 내조하여 이르기를, “고구려와 신라가 화친을 맺고 힘을 합해 신의 나라(백제)와 임나를 멸망시키려고 모의합니다. 그리하여 삼가 병사를 요청하여 먼저 불시에 두 나라를 공격할 생각입니다. 군병의 많고 적음은 천황의 칙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조정은 그에 답하기를, “지금 백제왕·안라왕·가라왕, 일본부의 신臣 등이 함께 사신을 보내 아뢴 것을 들었다. 부디 임나와 함께 마음을 합하고 힘을 하나로 하여라.”라고 하였다.(흠명천황欽明天皇 13년기)(목협금돈 등은 다음 해 정월 귀국했다.)

그해 10월 백제 성명왕[성왕]은 서부西部 희씨姬氏 달솔達率 노리사치계奴唎斯致契 등을 보내 석가불금동상 1구, 번개幡蓋 약간, 경론經論 몇 권을 바치고, 별도로 표표를 올려 불법의 유통과 예베의 공덕을 칭송하였다.(이에 대해서는 뒤의 10장에서 다시 서술하겠다.)

상황이 절박해진 백제는 목협금돈 등의 귀국을 기다리지 않고 계속하여 다시 원군을 요청하는 사신을 일본에 보냈다. 즉 다음 해인 553년 정월 입조한 상부上部 덕솔德率 과야차주科野次酒, 한솔扞率 예색돈禮塞敦 등을 보냈다. 그것도 백제와 임나 여러 나라 연합의 사신으로 하였다. [일본] 조정은 6월 내신內臣을 백제에 보내 원병 요구에 응하고 그 군은 백제왕의 지휘에 위임한다고 전하였다. 그리고 좋은 말 2필, 동선同船[하시후네] 2척, 활 50장張, 화살 50구具를 하사하였다.

그때 별도로 조서를 내려, “의궤박사, 역易박사, 역曆박사 등은 알맞은 순서대로 교대시켜라. 지금 위의 사람들은 바야흐로 교대할 시기가 되었다. 마땅히 돌아오는 사신(內臣의 귀국)에 딸려 보내 교대시키도록 하라. 또한 복서卜書, 역本曆本, 여러 약물을 함께 보내라.”라고 하명하였다.(흠명천황 14년기)

생각건대, 백제의 군사적 상황은 급박하였고, 신라와 연합하여 탈환한 한성 지역도 병력 부족과 부진으로 인해 신라 영역으로 내주지 않을 수 없는 참상이었다. 백제는 그 부족함을 일본의 원군으로 보충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별도의 조치에 대한 내용으로, 의박사를 비롯한 여러 박사의 교대를 독촉하고 요구한 것이다. 그러한 교대제에 의해 여러 박사를 보내기[貢上] 시작한 연대는 『일본서기』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513년에 처음 보이는 오경박사五經博士 파견 또한 교대제가 발전한 것임은 분명하다. 백제의 문화를 유입하는 구체적 방법 내지 형식의 근간이 박사 교대제에 있었음은 충분히 기억해 둘만하다. 나아가 박사 교대제는 의외로 정비되어 있었는데, 다음 해 2월 백제가 보낸 사람들에게 대한 상세한 기사가 그것을 증명한다.

이어 8월 백제는 상부上部 나솔奈率 과야신라科野新羅, 하부下部 고덕固德 문휴대산汶休帶山을 보내 표를 올려 이르기를, “지난 해 저희는 의견을 하나로 하여 내신內臣 덕솔德率 차주次酒와 임나의 대부大夫 등을 보내 바다 밖 여러 미이거彌移居(미야케, 관가官家)의 일을 아뢰고, 그에 대한 [일본] 조정의 은혜로운 조서를 기다리는 마음이 단비를 기다리는 봄풀과 같았습니다. 올해 들어 문득 들은 바에 의하면, 신라와 고구려가 모의하기를 ‘백제와 임나가 자주 일본에 사신을 보내는 것은 반드시 군사를 청하여 신라를 치기 위한 것이다. 일본이 군사를 보내기 전에 안라를 쳐서 취하여 일본에서 오는 길을 끊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신라의 계략이 그와 같습니다. 저희 들은 그것을 듣고 깊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어, 이에 가벼운 배로 빠른 사신을 보내 표를 올려 아뢰는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속히

전군과 후군을 연이어 내어 와서 도와주십시오. 가을 이전에는 미이거를 굳게 지켜 내겠습니다. 만약 늦어진다면 후회해도 소용없을 것입니다. 보내는 군사가 신의 나라에 도달하면 옷과 식량 비용은 신이 충당할 것이며, 임나에 도착하면 임나에서 충당할 것입니다. 만약 임나가 충당하기 어렵다면 신이 반드시 도와 보충하겠습니다. 한편 적신은 천황의 칙을 받아 와서 신의 나라(백제)를 위무하며 주야로 신중히 일을 하였습니다. 바다 밖의 여러 나라들은 모두 그 명성을 칭찬하며 부디 만세토록 바다 밖을 평정할 사람이라 하였는데, 불행하게 죽어 깊이 침통할 따름입니다. 지금 임나를 다스리는 사람을 잃었으니, 속히 그를 대신할 사람을 보내야 합니다. 또한 바다 밖의 여러 나라들은 활과 말이 매우 부족하여 예전부터 지금까지 [일본] 조정에서 받아와 강적을 막아 왔습니다. 원컨대 많은 활과 말을 내려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신라와 고구려가 연합하여 백제와 임나를 공격해 온다고 하는 것은 백제가 구원군의 빠른 파견을 요구하기 위해 만들어낸 이유에 지나지 않았다. 또한 이때에 죽음을 보고하며 생전의 공을 칭찬한 적신은 아마도 이나사(移那斯나 마도麻都와 나란히 일찍이 백제의 배척이 그치지 않았던 일본부의 관료 중 한 사람이었다. 앞의 말은 완전히 잊어버리고 여기서 그러한 찬사를 드러내는 백제의 일관성 없는 시책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그 다음 해인 554년 봄 정월 백제 사신 중부 시덕(施德 목협문차(木荔文次, 전부 시덕 일좌분옥(日佐分屋 등이 축자(筑紫[쓰쿠시]에 왔다. 이때 축자에는 지난해 6월 백제로 향했던 사신 내신(內臣과 좌백련(佐伯) 連[사에키노 무라지]이 아직 바다를 건너지 않고 머물러 있었다. 내신의 도해(渡海) 예정은 그 정월로 미리 백제에 통보되어 있었는데, 문차 등은 그것을 재촉하고 파견군의 수를 알아가야 할 사명을 지니고 있었다. 내신은 그 사정을 듣고 조정의 칙령을 받아 구원군의 수는 1,000명, 말 100필, 배 40척이라 답해 알렸다.(문차 등은 3월에 귀국한다.)

2월에는 다시 백제의 사신 하부 한솔 장군 삼귀(三貴, 상부 나솔 물

부오物部烏 등이 와서 구원병을 요청하였는데, 그 사신에 붙여 지난해 별도외 조칙으로 답한 동성자막고東城子莫古, 오경박사 왕유귀王柳貴, 승려 담혜曇惠 등 9명, 역易박사, 역曆박사, 의박사, 채약사採藥師 2명, 악인樂人 4명을 보내 전임자와 교대시켰다.

그리고 내신은 예정보다 반년 늦은 6월에 이르러 수군을 이끌고 백제에 도착했는데, 아마도 바닷길을 통해 금강으로 들어가 백제의 도성에 도달하였을 것이다. 백제는 크게 기뻐하고 힘을 얻어 12월 9일을 기일로 하여 신라 공격을 개시했다. 먼저 동방령東方嶺 물부막가무련物部ノ莫哥武ノ連[모모노베노 마카루노 무라지]으로 하여금 함산성函山城을 공격하게 했다. 함산성은 오늘날의 충청북도 옥천沃川으로 비정되는데 백제의 도성(부여)에서 겨우 17~18리 떨어져 있는 지점이다. 백제가 얼마나 절박했고 공격하지 않을 수 없었던 상황이었음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한다. 이 함산성 전투에서 내신의 부하 죽사물부막기위사기竹斯ノ物部ノ莫奇委沙奇[츠쿠시노모노노베노 마카와사키]라는 자는 불화살을 쏘는 명수였는데, 그가 성을 불살라 함락시킬 수 있었다. 함산성 공략은 기울어 가는 형세를 만회한 계기가 된 전쟁이었고, 그 전쟁에서 일시의 성공을 거둔 백제는 빠르고 단출한 사신(하부 한술문사간노汶斯干奴)을 일본에 보내 소식을 알리고, 동시에 “신라만을 공격하는 것이면 내신의 군사로 충분하겠지만 지금의 적은 고구려도 있기 때문에 축자의 여러 군대를 보내 백제뿐만 아니라 임나도 구원해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게다가 그 첩보에 원하는 바를 기술한 것을 겸하여 표문을 올린 사람들을 “백제왕 신민 명명과 안라에 있는 여러 왜倭의 신하들, 임나 여러 나라의 한기루岐 등”이라고 이름을 늘어놓고 또 “신(백제왕)도 별도로 군사 1만을 보내 임나를 돕겠습니다.”라고 하는 공허한 말을 더하였다.

함산성에서 승리한 백제의 왕자(여창餘昌)은 일거에 신라 본지로 들어가 구타모라久陶牟羅에 성책을 쌓았다. 구타모마는 낙동강 상류 유역으로 오늘날의 경상북도 서북부에 있는 하나의 산성으로 상정되는데, 확실한 비정은 불가능하다. 왕자를 도와야 하는 상황 되자 성명왕

스스로도 신라 땅으로 치고 들어갔다. 신라는 나라의 거의 모든 병력을 동원하여 그를 막았는데, 문득 포위하는 군사를 배치하여 그 퇴각로를 끊자 성명왕은 불행히도 적의 손에 참수되었다. 왕자 여창은 차츰 포위를 풀고 빠져나와 셋길로 돌아올 수 있었다.

앞의 함산성 전투부터 성명왕의 전사에 이르는 경과에 대해 『삼국사기』 신라본기에서는 “진흥왕眞興王 15년 가을 7월, 백제왕 명농明禮이 가라加良와 함께 와서 관산성을 공격하니, 군주軍主 각간角干 우덕于德과 이찬伊滄 탐지耽知 등이 맞아 싸웠으나 전세가 불리하였다. 신주新州 군주軍主 김무력金武力이 주의 병사를 이끌고 와서 교전하였는데 삼년산군三年山郡(오늘날의 보은군報恩郡)의 비장裨將 고간高干 도도都刀가 급히 쳐서 백제왕을 죽였다. 이에 여러 군사가 승세를 타고 공격하여 크게 이겨, 좌평佐平 4명, 사졸士卒 29,600명을 참수하고 말 한 마리 돌아가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백제본기에는 “성왕 32년 가을 7월 왕이 신라를 습격하고자 하여 친히 보기步騎 50을 이끌고 밤에 구천狗川에 이르렀다. 신라의 매복 군사와 전투를 하는 어지러움 속에서 해를 입어 죽었다.”고 하였다. 『일본서기』에서 말한 함산성이 『삼국사기』의 관산성에 해당함은 ‘함函’자의 한국어 뜻(kor)과 ‘관菅’의 한국어 뜻(kor)이 일치함에서 인정되고, 또한 관산의 옛 이름인 고시산古尸山の 고시古尸(ko-r)가 그것을 뒷바침 해 준다. 아마도 백제가 쇠퇴하는 형세를 바뀐보고자 했던 전장으로 함산성을 선택한 것은 그 성이 오래부터 신라가 지배하여 신라가 서쪽으로 진출하는 근거지였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 다음 해인 555년 봄 2월 백제의 왕자 여창은 동생인 왕자 혜惠를 일본에 보내 성명왕의 죽음을 알렸다. 왕자 혜가 본국으로 돌아갈 때(556년 정월) [일본] 조정에서는 병장기와 좋은 말을 주고 아베신阿倍ノ臣[아베노 오미], 좌백련佐伯ノ連[사에키노 무라지], 파마직播磨ノ直[하리모노 아타히]을 보내 축자의 수군을 이끌고 혜를 호송하였다. 특히 축자의 화군火ノ君[히노 키미]으로 하여금 용맹한 군사 1천을 이끌고 미지彌氏의 나루터까지 호송하게 하고 그 나루터의 요충지를 지

키게 하였다. 미저(mi-cho)의 나루터는 섬진강 하구 맞은편에 있는 경상남도 남해도[오늘날의 남해군]의 동남단에 있는 미조彌助(mi-cho)리 [오늘날의 미조면]로 비정된다.

백제가 쇠퇴하는 형국을 회복시키려 하였던 시도는 실패로 끝났다. 바꾸어 말하면 임나를 먼저 차지하려고 했던 계획도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일본과 접촉하는 움직임도 그 뒤 몇 년 동안은 전하여 기록된 것이 없다. 그리하여 임나는 신라의 병합과 침략에 내맡겨 졌다. 신라는 560년에 미지기지彌至己知 나말奈末을, 561년에는 구례질久禮叱 급벌간及伐干을 보내 조공을 바치고 일본에 접근하여 태도를 살피는 동시에 일본에 대한 방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아라阿羅 파사산성波斯山城의 축조가 그것이다. 다만 그 소재지는 알 수 없다.

그 뒤의 추이를 한국 사료를 통해 살펴보면, 신라는 백제의 성명왕을 전사시킨 다음 해인 555년 비자화比自火(비자벌比斯伐=창녕)에 주州를 설치하고 완산주完山州까지 하주下州라 하고 군단을 배치하여 비자벌정比自伐停이라 이름 붙였다. 하주의 이름은 말할 것도 없이 상주上州에 대응하는 것으로 상주上州는 상주尙州로, 그 곳이 신라 영토로 편입된 해는 525년경으로 생각되는데, 552년에는 더욱이 그 곳에 군단을 설치하고 상주정上州停이라 하였다. 557년에는 그 상주를 폐지하고 감문군甘文郡(오늘날의 김녕開寧[김천])에 감문주甘文州를 두었다. 그것은 감문이 백제의 동쪽 진출을 막고 임나를 병합시키기에 상주 이상으로 유리한 지점이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561년 2월 신라 진흥왕은 하주로 순행하여 유명한 <신기비루己碑[창녕진흥왕순수비]>를 영세의 기념비로 세웠다. 그 거국적 순행은 낙동강을 사이에 두고 잔존해 있는 임나 여러 나라에 대한 시위였으며, 임나의 병합을 완수하고자 하는 결의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일본서기』에는 562년에 해당하는 흠명천황 23년기에 “봄 정월 신라가 임나의 관가를 쳐서 멸망시켰다.” 하고, 분주分注에는 “어떤 책에 이르기를 21년에 임나가 멸망했다. 총괄적으로 임나라 하고, 별도로 가라국加羅國, 안라국安羅國, 사이기국斯岐國, 다라국多羅國, 졸마국

卒麻國, 고차국古嗟國, 자타국子他國, 산반하국散半下國, 걸찬국乞漘國, 임례국稔禮國이라 하고 합하여 10국이 된다.”고 하였다. 언급된 바의 ‘임나의 관가’는 즉 ‘임나에 있는 미이거彌移居(미야케)의 나라들’이다. 분주에서 말한 10국 중 8국은 앞서 541년과 544년에 백제에 나아가 회의에 참여한 나라들 이름에서도 보이고, 여기서 처음으로 언급된 나라는 걸찬국과 임례국 두 나라이다.

걸찬국의 후보지는 3개가 있다. 그 첫 번째는 아유카이 씨가 비정한 굴자군屈自郡(구사군仇史郡[오늘날의 창원])이다. 그 근거는 ‘걸乞’(한국어 발음 kúr)과 ‘굴屈’(한국어 발음 kur)이 통하고, ‘찬漘’(한국어 발음 chan)과 ‘자自’(한국어 발음 cha)가 통하기 때문이다. 또 그곳 경상남도 창원은 안라(함안)의 동쪽 5리로, 임나의 마지막 한 나라의 소재지로 보아도 문제 될 바 없다. 두 번째는 굴촌현屈村縣(강주康州의 속현[오늘날의 진주])으로, 굴촌(한국어 발음 kur-chón)은 걸찬의 대역對譯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굴촌현은 지금의 진주에서 서쪽으로 5리 떨어진 곳으로 이 또한 임나 최후의 한 나라의 소재지로 보기에 문제없다. 세 번째는 궤지군闕支郡(궤성군闕城郡·강성현江城縣[오늘날의 산청])으로 궤지(한국어 발음 kuór-chi)는 또 걸찬에 가까운 음이다. 그 땅은 진주의 서쪽 4리 경상남도 산청군 단계丹溪로, 임나의 마지막 한 나라의 소재지로 마땅하다. 걸찬은 이 세 곳 중 어느 한 곳에 비정해야 할 것이다.

임례국에 대해 아유카이 씨는 ‘임稔’의 발음이 ‘임任’과 같고 (nim=im), ‘례禮’는 ‘라羅·량良·리理와 같은 발음을 나타내는 데 쓰이며, 또 그러한 전호음轉呼音으로 나那·야耶·야也와 같은 차자借字로 사용되기 때문에 임례는 곧 임나(금관)의 대역對譯이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앞의 분주는 금관국 멸망 이후에 잔존한 나라들을 열거한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임나에 해당한다는 설은 따를 수 없다. 그래서 다른 후보지를 찾아보면 거창군(거타居陶)의 속현으로 남내현南內縣이다. 남내(한국어 발음 nam-nai)는 임례(nim-rioi, nim-nioi)와 [발음상] 가깝다. 오늘날의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이다. 거창의 서북쪽 3

리이다. 임나의 마지막 한 나라의 소재지로 적절한 곳이다.

요컨대 앞의 분주에 열거된 10국은 임나 여러 나라의 이름을 단순히 이것저것 모은 것이 아니고, 대략 532년 이후 여전히 남아 있던 여러 나라뿐이다. 바꾸어 말하면 신라에게 임나로 진출하는 구실을 부여한 함산성 공략(554년) 이후 562년에 이르는 8년 사이에 하나하나 신라에 병합되었던 나라들이다. 그 병합과 멸망은 전쟁다운 전쟁의 형태로 진행되지는 않았다고 생각된다. 이미 서술한 바와 같이, 임나의 여러 나라들 자체에서는 신라에 귀부할 마음은 있어도 대항할 뜻이 있었다고는 생각되지 않기 때문이다. 병합은 그리하여 562년 정월까지 일단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가까이는 백제, 멀리는 일본 조정이 그 병합을 그대로 묵인했을 리 없고, 오랜 세월 동안 진행되었던 상황만을 보더라도 한번의 적극적인 항전이나 항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562년 가을 7월 기남마려속례紀ノ男麻呂ノ宿禰[키노위마로노 스쿠네]를 대장군으로 하여 아변신경부河邊ノ臣瓊缶[카하베노 오미니헤]를 부장으로 하여 임나 지역으로 들어가게 했다. 그 또한 임나를 탈환하는 것과 같은 적극적인 전쟁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대장군은 다리哆唎 방면에서 부장군은 거증산居曾山 방면에서 진군했다. 다리는 이 경우 전라북도 북부에서 충청북도 남부에 해당하는 지방으로 상정되므로, 여창餘昌이 취한 함산 방면에서 아마도 추풍령秋風嶺을 넘어 경상북도 서부로 들어가는 길목이었을 것이다. 거회산을 전라북도 동남단의 남원南原 동북쪽 5리에 있는 거사물현居斯勿縣(거령현居寧縣)에 비정하는 것이 허락된다면, 남로인 운봉雲峰에서 함양으로 나오는 노선이거나, 혹은 북로인 장수長水에서 거창(또는 안의安義)으로 나아갔음에 틀림없다. 그런데 전설에 의하면 기남마려속례는 신라의 계략에 걸려 신라가 거짓으로 항복한 것을 믿고 병사를 돌려 백제로 돌아갔고, 하변신만 홀로 진군하다가 신라의 맹공을 받아 사로잡히게 되어 면목 없는 태도를 보이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조길사이기나調吉士伊企儼[츠키노 키시이키나]와 그의 아들, 구자舅子[오지코]와 그의

아버지 등은 끝까지 항복하지 않고 함께 목숨을 버린 미담 또한 세간에 두루 알려지게 되었다.

임나의 최후에 관한 기사를 『삼국사기』 신라본기에서 찾아볼 때, 앞의 562년에 해당하는 진흥왕 23년 조의 기사가 있다. 거기서는 “가을 7월 백제가 변방을 침략하니, 왕이 군대를 내어 그것을 막고 1천여 명을 사로잡았다. 9월 가야가 반란을 일으키니, 왕이 이사부異斯夫에게 명하여 그것을 토벌하였다. 사다함斯多함은 그의 부장이었는데, 5,000기를 이끌고 먼저 달려가 전단문梅檀門으로 들어가 백기를 세우니 성안의 사람들은 두려워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다. 이사부가 병사들을 이끌고 그곳에 다다르자 일시에 모두 항복하였다. 전공을 논함에 사다함이 으뜸이 되어 왕이 상으로 좋은 토지와 포로 2백 명을 주었다. 사다함은 세 번 사양하였으나 왕이 굳이 주므로 받았다. 그러나 포로는 풀어주어 양인이 되게 하고 땅은 군사들에게 나누어 주니, 나라 사람들이 그것을 아름답게 여겼다.”고 하였다. 사다함의 전공에 대해서는 『삼국사기』 사다함 열전에 더욱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삼국사기』 기사를 앞의 『일본서기』에 전하는 바와 비교해 보면, 『삼국사기』에는 7월과 9월로 구별하여 완전히 별개의 사실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일본서기』에 기념마려숙례와 하변신 등이 출병하여 패배에 이르는 일련의 사실, 바로 그것이다.

신라의 임나 병합은 거기서 종지부를 찍었다. 그것을 집약적으로 말하면, 『일본서기』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임나의 관가’ 즉 임나에 있는 ‘미이거彌移居[미야케]’의 나라들을 병합한 것으로 임나일본부任那日本府의 멸망이었다. 그러나 개별적으로 보면, 위에서 언급된 10국이 매해 병합되어 최후의 1국 내지 몇 개의 나라가 그 해에 멸망한 것이다. 그러므로 『일본서기』에서 [흙명] 23년에 임나 관가의 멸망을 본문에 게재하고, 분주에 또 다른 설로 “21년에 임나가 멸망했다.”고 전하는 기년이 반드시 잘못되었다 단정할 수 없다. 21년에 멸망했던 나라가 하나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임나 여러 나라를 병탄하는 업적을 모두 완수하고 3년 뒤인 565년,

신라는 하주下州를 폐하고 대야주大耶州를 두었다. 대야는 앞서 서술한 다라국多羅國이다. 그 곳에 주를 둔 일은 말할 것도 없이 신라가 서쪽으로 진출하는 새로운 첫걸음이었다. 대야주는 옛 임나령任那嶺을 통치하는 중심일 뿐만 아니라, 이후 전개되는 백제 공략의 제1선 기지가 된다.

주제어 : 임나, 신라, 백제, 고구려, 일본, 삼국사기, 日本書紀

[투고일 : 2020.10.23, 게재확정일 : 2020.11.30]